

청년생활

9

1962



(시) 새 집

주 태 순

또 한 채 새 집을 세웠노라.
대문을 쩡 열고 내다보니
오곡 익는 냄새에
금시 취할것만 같이 마음 후련하구나.

영근 이삭은 들길을 메우며 설레이고
과원의 사과 배는 향기를 뿌리거니
가을 빛으로 색칠 하였는가
흰 벽에 무지개가 비껴오누나.

옥도끼로 다듬어 세운듯
윤기 도는 기둥에 써 붙친

—20만 세대 주택고지를 점령하자—
아, 승리에로 부르는 글'발이여!

해마다 만풍년의 쇠북소리 높은
내 고향 살기 좋은 고장에
새 집들은 어깨 돋음 치거니
여기서 천년 만년 살고 싶어라!

인민 주권 받들고
천만년을 살아갈 조국땅 우에
새 집들은 늘고 웃음은 높아지거니
행복의 주권 철석같이 다지는 마음으로
오늘도 또 한채 새 집을 세웠노라.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156)

청년생활



9
1962



차 례





제2부 중에서

전호에서 계속

박 달

하루는 석양 비낀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다 문득 집 생각이 떠 올랐다. 쌍가매와 어린 동견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여지는 그것들, 생각은 또 해서 무엇하랴. 아버지 가슴을 이렇게도 쥐여 뜯을려고 생겨난 것들, 아니 그것들 생각을 하면 치가 떨려 견딜 수 없다. 인제 또 무슨 필요가 있어 그 생각을 하겠는가, 아예 잊어 버리고 말자. 싹 잊어 버리고 말자! 성호는 두 어린것 생각만 나면 이렇게 머리를 내저으며 그 생각을 잊어 버리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어린 것들이 아니라 어머니와 금숙의 생각이였다.

성호는 함흥 형무소로 오면서 집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놈들은 예심 종결이 끝나고 공판이 진행되기 전에는 일체 밖에서 오는 편지도 보이지 않았고 안에서도 편지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

금숙은 여러 차례 편지를 했지만 성호는 모르고 있었으며 회답이 나가지 않으니 금숙이 역시 궁금해 견딜 수 없었다.

(어머님은 지금 어디 가서 계시는가, 금숙은 어디 가 있고. 금숙은 친정에라도 가 있으면 처남들이 있으니 굶지는 안 할터인데. 어머님도 고향에 나오시면 굶으시지는 않을 터인데.)

성호는 별 생각이 다 났다. 한 어머니의 아들로, 한 녀인의 남편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어머니와 처로 하여금 갖은 구박을 당하게 하며 남의 눈치'밥을 먹게 하니 어떻게 이게 사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역시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성호는 이렇게 자기 생각을 돌렸다.

(아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어찌 어머니와 금숙이 뿐[illegible]가, 조선의 거의 전부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살지 않는가, 아니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이 모두 그렇게 살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불행들과 굶주림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가 이렇게 철창에 갇히우지 않았는가, 앞으로도 나는 영원히 이땅에서 인간 비극의 온갖 불행을 불살라 버리고 지상 락원을 건설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어머니! 이 아들을 원망 마십시요. 앞으로 더는 모든 사람들, 녀인들이 그런 불행을 맛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머님은 지금 그런 고생을 하십니다…금숙이, 당신도 그렇게 알아주기 바라오. 다시는 우리 청춘들이 이런 고통, 쓰라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당신은 지금 그 고통, 쓰라림, 외로움을 겪는 것이요. 더욱 기운을 내시요. 승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오. 모든 불행이 땅 우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지상 락원, 그 날이 우리 시대에 오고야 말게요. 금숙이! 지금은 어디서 홀로 울고 있소. 기운을 내오. 용감하게, 씩씩하게 살아요. 김 일성 장군님을 믿으시요. 나는 비록 철창에 있지만 그분께서는 꼭 우리를 승리에로 이끌어 주실게요. 금숙이! 지금 어데 있소. 아예 눈물일랑 흘리지 말아요. 당신은 결코 외롭지 않아요. 금숙이…)

성호는 어느덧 두 눈에 이슬이 맺히고 있었다. 금숙이에게는 울지 말라고 하면서 성호는 울고 있는 것이다.

(내가 왜 이런가. 장백의 눈바람 속에서도 용감히 싸우고 있는 동지들을 생각하라, 무엇이 너를 이렇게 나약한 자로 만드는가, 부질없는 생각이다.)

성호는 놀란듯 머리를 내두르며 창에서 물러 섰다.

어느덧 식사 시간이 된 것이다. 소제부가 분주히 뛰여 다니며 밥을 날라 주고 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철창으로 따사로운 해'빛이 새여 든다. 훈훈한 봄'바람이 철창을 스치고 지나간다. 봄, 봄, 모든 생물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기를 불어 넣어 주는 봄, 모든 것이 약동하는 봄, 이 봄이 벌써 두 번째 성호를 찾아 주었다.

성호는 봄이 되면서 더욱 몸이 쇠약해졌다. 그러나 성호는 날이 가면 갈 수록 일제가 망하는 날이 빨리 다가 온다는 것으로 마음은 더욱 든든했으며 동무들을 자기와 같은 신심으로 계속 통방을 통해 격려했다. 그 사이 소제부 동무가 갈리였다. 소제부 리 춘실 동무는 만기로 출옥하면서 성호를 위해 금숙의 친정에 찾아 가 소식을 전해 주며 책도 사서 들여 보내 줄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자기도 나가면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겠노라고 하면서 성호와 헤여지는 것을 못내 애석해 하였다. 그 다음으로 온 소재부는 나이 40이 가까와 보이는 구레나룻 자리가 시꺼먼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좋았다. 박 유경이란 경제범으로 들어 온 사람이였다. 형기는 3 년이고 직업은 시계포를 운영했다 한다. 그런데 이 박 유경이는 미결에서 장백 사건과 갑산 사건 동무들과 같이 있어 본 일이 있어 이미부터 성호를 잘 알고 있었다. 박 유경은 좀 눈치가 무딘 사람이였으나 그러나 성호의 말은 성의껏 들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때 간수가 래일 공판 취조를 받으려 나가게 되였으니 그리 알라고 미리 알려 주었다. 그것이 바로 1941년 3월 14일이였다. 성호는 다음 날 처음으로 공판 취조를 받기 위해 재판장으로 나갔다. 성호는 그 전날 밤 공판정에 나간다는 통고를 받고 바늘 하나를 준비했다.

공판 취조는 대개 여러 사람씩 나가 받는 법인데 이 날은 성호 혼자 불리워 나갔다. 재판소에는 취조 나오는 수감자들을 넣어 두기 위해 비둘기장만큼씩한 감방이 여러 개 있었다. 아침 일찍 자동차로 재판소로 불려 간 성호는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바늘로 흰 벽에 다음과 같이 새겨 놓았다.

《경찰이 억지로 꾸민 조서를 가지고 우리를 불법 재판을 하면 우리는 서울로 상소하여 절대로 부인하자.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조선 인민 혁명군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

조선 혁명 만세!

김 성호 썼다.》

성호는 이렇게 써 놓으면 동지들이 이 방에 들어 왔다가 이것을 보고 공판에서 공동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써 놓고 보니 성호는 다음 방에 또 쓸 생각이 났다. 성호는 꾀를 내여 간수를 찾았다. 간수가 왔다.

《변소에 좀 가야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간수놈이 문을 열고 내 주었다. 간수가 변소 안에 들여 보내고 밖에서 기다렸다. 한참 있다가 나온 성호는 비둘기장 앞에 왔다.

《네가 들어 갔던 칸이 어느 칸이냐?》

《이 칸입니다.》

성호는 다른 칸을 가리켰다. 간수가 문을 열고 들여 보냈다. 그 방에 또 같은 글을 새겼다. 오전 취조가 끝나고 점심을 먹고 들어올 때 성호는 또 다른 칸으로 들어 갔다. 이렇게 해서 오후까지 이 날 성호가 벽에 글을 새긴 방이 모두 여섯 칸이였다. 성호는 동무들이 취조를 받으려 나왔다가 이 글을 보면 얼마나 사기가 오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형무소로 돌아왔다. 다음 날 저녁 권 벽과 리 동순에게서 다음과 같은 격려의 내용이 전해 왔다.

(동무가 비둘기장에 써 놓은 글은 우리 동무들에게 더욱 용기를 주었다. 장백현 사건은 증거가 나와 부인할 수 없지만 보천보 사건에 국내 동무들을 끌어 들이는 것은 절대 반대하자. 그리고 공판 날에는 철저히 일제를 폭로하는 연설들을 하자!) 성호는 더욱 기운이 나서 꼭 그렇게 하자고 회답을 했다.

며칠 후, 계호과에서 갑자기 성호를 불러 내갔다. 험상궂게 생긴 간수장놈이 시퍼렇게 독이 올라 종이'장 하나를 내민다. 거기에는 성호가 비둘기장에 새긴 그 글이 옮겨 써 있었다.

《이 글을 네가 썼지.》

성호가 서슴 없이 태연히 대답했다.

《그렇소, 내가 썼소.》

간수장 놈은 당장 어쩔 듯이 숨을 몰아 쉬며 한참 성호를 노려 보다가 옆에 서 있는 간수에게

《이 놈에게 수쇠를 채우고 허리에 쇠줄을 매여 손을 달아 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간수가 옆 방으로 성호를 데리고 나가 시키는 대로 했다. 다시 성호가 간수장놈 앞에 서자 간수장놈은 쇠줄을 단단히 맺는가 검열해 보고 이렇게 말했다.

《감옥 규정에 의해 5일간 운동과 목욕을 금지한다. 그리고 3 개월간 문서 금지를 명령한다.》

문서 금지란 놈들이 감방 안에 들여다 주어 보게 하는 책과 놈들이 일부러 수감자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 인쇄한 신문과 잡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외부로부터 오는 편지와 한 달에 한 번씩 외부로 할 수 있는 편지를 못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호는 편지 거래는 여직 못 하고 있어 그건 해당이 안 되고 놈들이 주는 서적은 보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지만 3 개월 동안 소식란을 읽을 수 있는 《히도》와 《미찌》를 못 보게 되는 것이 좀 아쉬웠으나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성호가 새긴 글은 이미 많은 동무들이 직접 보았고 또 통방을 해서 전체 동무들에게 알려졌으며 새로운 투쟁에로 고무하였다. 5월 21 일부터 3 일간, 이 사흘 동안은 력사적인 장백현 사건 수백 명 동지들과 조선 민족 해방 동맹 180 여 명 애국 투사들에 대한 일제의 공판이 진행 되는 날이였다. 이 날 공판정 안팎은 무장 경관들로 삼엄하게 둘러 싸였으며 무장한 헌병들까지 나와 있었다. 만 4 년만에 서로 얼굴들을 마주 볼 수 있었던 동지들은 파리해진 얼굴들이였으나 웃음을 담뿍 담고 서로 인사들을 했으며 그리운 손들을 놈들의 눈을 피해 가며 가만히 쥐여도 보았다. 성호는 4 년만에 그립던 권 벽, 리 동순, 김 시욱을 보자 너무도 반갑고 감개 무량해 한 동안 웃음을 담은 채 멍하니 바라 보고 있었다. 쇠고랑을 찬 손이지만 서로 덥석 쥐여가 잡고 싶었다. 그러나 간수놈들이 막고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눈 인사를 했다.

공판정 안은 놈들이 소위《대법정》이라는데 데 공판정 안에도 벽을 둘러 싸고 무장 경관들이 죽 서 있었으며 열 놈 정도로 사이에 헌병이 한 놈씩 서 있었다.

판사, 검사가 앉는 높은 단 우에는 번들번들한 앞이 막힌 책상을 죽 늘어 놓았는데 놈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그 뒤로 특별 방청석을 만들어 놓고 도 경찰 부장을 비롯한 도내 소위 유력자들이 늘어 앉아 있었다.

수백 명의 동무들이 들어 가자 법정은 금시 가득 차는 것 같았다. 옆으로는 이상한 옷차림을 한 변호사 두 놈이 앉아 있었다. 공판은 처음부터 비공개로 한다는 것을 놈들이 선포했기 때문에 방청객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극 비밀리에 삼엄한 경계 속에서 공판이 시작되였다. 재판장, 판사, 검사장 이렇게 대



여섯 놈이 거드름을 피우며 나와 앉더니 점명부터 시작했다. 수백 여 명을 점명하는 데도 퍼그나 시간이 지나 갔다.

공판은 이렇게 3 일 동안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였다. 재판장은 혜산 경찰서에서 놈들이 날조한 소위 보천보 사건에 조선 민족 해방 동맹 간부들이 가담했다는 위조 문건을 가지고 그를 확인하라고 매개 사람들에게 강요했다. 그러나 그 문제만은 일체 부인하기로 되여 있기 때문에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검사장 놈은 마지막 날 오후 강다짐으로 론고를 하였다. 역시 놈은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발악적인 론고를 하였다. 동무들이 격분했다. 검사장 놈은 드디여 권 벽, 리 동순은 말할 것도 없고 김 성호, 김 시욱 등 10 명의 투사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6 명의 투사들에게는 무기 징역을 구형했고 대부분의 동지들에게는 10 년 이상 15 년 징역의 중형을 구형하였다. 동무들이 격분을 참지 못하였다. 이 때였다. 장백에서 온 사형을 구형 받은 지 태환 동무가 뒤'줄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벼락 같이 소리를 질렀다.

《이 악독한 일본 제국주의 강도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사형한다고 하여 우리 혁명이 성공 못할 줄 아느냐? 나는 공산당원이다. 우리 나라는 머지 않은 장래에 일본 제국주의 너희 놈들을 물리치고 독립될 것이며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튼튼히 믿고 있다. 나를 죽일테면 죽여라, 나는 너희들의 멸망을 비웃어 가면서 눈을 감을 것이다. 조선 혁명 만세!》

이에 격동한 동지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 그러자 격분을 참지 못하는 권 벽이가 벌떡 일어났다. 권 벽은 일제의 조선 침략과 만주 침략 또 나아가서는 현재 중국을 침략하고 있는 데 대하여 폭로하면서 일제는 중국에 가서는 패망한다는 것을 론증하였다.

이번에는 리 동순이가 일어 났다. 동순은 주로 일제의 조선에서의 폭압을 반대하여 연설했다. 김 시욱은 일어나 일제 경찰의 간악한 행동을 폭로하였다. 다음은 성호가 일어 섰다. 성호는 좀 더 까근까근 대들었다.

《우리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놈들은 무엇으로 우리를 단죄하려고 하는가? 만일 우리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고 자주 독립 국가라면 우리는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열렬히 싸웠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식민지 백성으로 아무 권리도 없이 너희놈들에게 강제로 처단을 받게 되는 것이 실로 원통하다. 보라! 지금 우리 조선 사람들은 너희놈들의 야수 같은 침략으로 말미암아 갖은 압박과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사람 이하의 학대를 받고 있다. 바로 죄인은 우리들이 아니라 너희놈들이다. 단죄는 응당 네놈들이 받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진리를 위해 싸운다. 조선 사람이 조선을 통치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며 이것은 정의이며 진리이다. 우리는 자기 조국을 찾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를 하루 속히 석방해라! 혜산 경찰서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초보적 법률까지도 유린하면서 마음 대로 우리 동무들을 20여 명이나 고문하여 죽였다. 이 죄'과를 은폐하기 위하여 자기의 앞잡이 의사들을 시켜 심장 마비로 죽었다는 거짓 진단서를 만들어 선량한 조선 사람을 기만하고 있다. 이렇게 무고한 조선 사람을 20 여 명이나 학살하고도 그 중 10 여 명은 시체조차 자기 집으로 돌려 보내지 않고 암장해 치웠다. 이것이 바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성이다. 단죄를 받을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성호의 말이 여기까지 이르자 재판장은 당황하여 성호의 언권을 박탈해 버렸다. 성호는 좀 더 일제를 폭로하고 싶었으나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호가 앉자 또 다른 동무들이 이리 같은 일제 경찰을 폭로했고 부당한 구형을 일축했다. 간수놈들, 무장한 경찰 놈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며 일어 나는 동무들을 강제로 앉히기에 정신이 없었다.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럴수록 동무들이 더 떠들었다. 헌병들이 뛰쳐 들어 말하는 동무들을 위협했다. 동무들은 헌병에게 대항했다.

재판장놈은 당황해서 일어나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황황히 폐정을 선언했다. 그리고는 꽁지 빠진 닭 꼴이 되여 쭈르르 나가 버렸다. 이러한 공판 투쟁은 여직 그 전례가 없었다. 특별 방청을 온 소위 도내 권력자들은 간담이 서늘해서 돌아 갔다.

구형이 있은 며칠 뒤 성호는 비로소 편지를 받아 보며 또 밖으로도 쓸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였다. 형무소 놈들은 구형까지 되였으니 편지 거래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성호는 구형을 받고 돌아 온 그 시각부터 동무들을 고무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안심들 하오. 사형, 무기형, 다 문제 없소. 놈들은 우리를 사형에 처하기 전에 패망을 할게요. 우리는 놈들이 사형을 집행 못 하게 계속 끌고 갑시다. 복심에 상소하고 고등 법원까지 상소합시다.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부인합시다. 김 일성 장군님은 일제의 서백리아 침략을 배후로부터 타격을 주고 계시답니다. (이 소식은 박 유경 소제부를 통해 놈들의 이야기를 엿들어 알고 있었다.) 놈들은 중국에서 전쟁을 벌쳐 놓고 감당할 길이 없어 자기의 개 왕 정위를 내세워 갖은 획책을 꾸미고 있답니다. 우리는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집시다. 사형, 무기 징역을 언도 받았다고 하여 조금도 락심하지 마십시요.》

이러한 내용의 격려는 리 동순에게서도 권 벽에게서도 또 김 시욱에게서도 퍼져 나왔다. 한편 성호는 락심을 하는 동무가 있는가, 그것

은 누군가 알아 냈으며 그 동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였다.

이지음 성호의 심정은 더욱 복잡하여졌다. 사형 구형을 받았대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그로 하여금 흔히 깊은 가책과 생각에 잠기게 하였다. 생각은 오직 한 가지, 김 일성 장군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지 못하고 철창에 갇히워 아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안타까움, 그것이였다. 그는 밤이면 거의 뜬 눈으로 날을 밝혔다. 눕기만 하면 눈 앞에는 천고의 밀림을 헤치며 왜적을 쳐부시는 간고한 싸움에로 줄달음쳐 나아 가시는 김 일성 장군과 인민 혁명군 용사들의 모습이 선히 떠 올랐다. 그는 쪽잠 속에서도 항상 김 일성 장군의 영상을 흠모하여 마지 않았으며 그 분의 손'길을 애타게 더듬었다.

그 분은 지금 어디 계시며, 어떤 위대한 구상 밑에 령활한 작전을 지휘하고 계시는지…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성호가 옥중에서 못내 김 일성 장군을 그리워 하고 있을 때 인민 혁명군은 그이가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인민 혁명군 부대들은 돈화현 소하발령 회의에서 김 일성 장군께서 제시한 방침에 따라 소 부대 활동으로 이행하였다. 당시의 국제 국내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앞으로 닥쳐 올 대사변을 령활성 있게 영접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투쟁 전술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시기는 우선 혁명적 핵심을 보존하기 위하여 소부대의 민활한 활동으로써 계속적인 소규모전을 전개하여 적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어야 하였다. 이와 함께 혁명군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사상 교양을 강화하며 인민 대중들 속에서 조국 광복회의 강령을 광범히 해석 침투시켜 그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계속 대중 속에 혁명적 지하 조직들을 복구하여 혁명 력량을 확대시켜야 하였다.

이것은 당시 정세에 부합되는 정확한 방침이였으며 대중을 새로운 혁명적 앙양에로 준비시키며 최후 결전을 승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혁명 력량의 보존을 위한 적극적이며 혁명적 방침이였다.

어느 날 저녁 때 소제부 박 유경이 밥 구멍 문을 열며 기쁜 얼굴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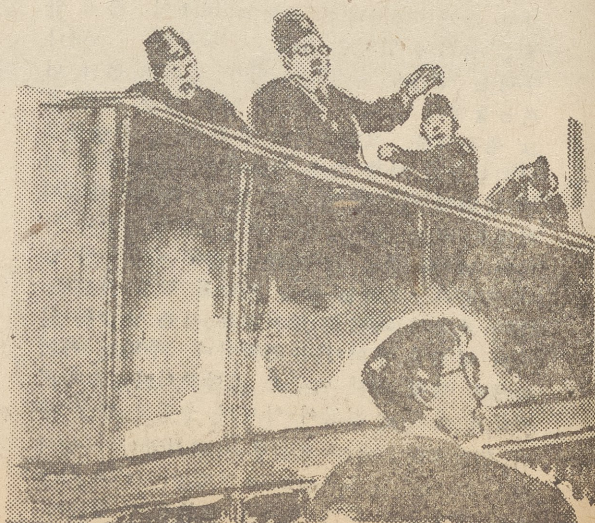
《선생님, 오늘부터 편지 보는 게 허락되였답니다. 담당 간수가 이 편지를 주라고 했습니다.》

박 유경은 이렇게 말하면서 장부 갈피에 낀 많은 편지들을 뒤지더니 성호에게 다섯 통의 편지를 내 주었다. 너무도 반가와 얼른 편지를 받았다. 모두가 금숙이에게서 온 편지다. 성호는 소제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잠시 편지를 뒤지였다. 성호는 어쩐지 편지를 뜯어 보기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보나마나 비참한 이야기가 씌여 있을 것 같아서였다. 성호는 그 중에서 함흥 주소로 보낸 일부 인이 제일 나중 날'자로 찍힌 편지를 먼저 떼였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었다.

《왜 편지 한 장 안 해 주시나요. 나오는 사람마다 물어 보면 당신께서도 몸 건강하게 독방에 계신다고 하시던데요. 이게 모두 거짓말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제 편지가 안 들어가나요. 벌써 몇 번째 면회를 갔는 데도 면회를 안 시킵니다. 정말 안타까와요. 저는 성진에 산다는 젊은 동무가 집에 찾아 와 당신 말을 하기에 확실한 소식을 알고 함흥으로 뛰여 왔습니다. 저는 지금 부자'집 식모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당신을 도와 드릴가 하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밥 얻어 먹고 7원씩 받습니다. 그걸 두달치 모아 당신께 10원을 들여 보냈는데 그건 받으셨는지요. 언제쯤 공판이 있어요. 벌써 몇 해야요. 안타까운 심정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호는 여기까지 읽다가 문득 멈추어 버리었다. 사형 구형을 받은지 이미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가? 물론 안해는 아직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성호는 편지를 읽다 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성호는 사랑하는 안해가 같은 함흥 시내에서 지금 산다고 생각하니 더 없이 그리웠고, 믿어웠고, 친근한 감을 느끼였다. 금시 금숙이의 말소리가 그냥 들리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금숙이에게 무슨 기쁘고 반갑고 희망찬 소식을 전해 준단 말인가? 사형 구형을 받은 자기가—. 성호는 그저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안타깝고 괴로운 이 심정을 누가 알아 주리…성호는 눈을 감고 어지러운 생각을 털어 버리기 위해 애 썼다.



성호는 밥맛이 없어 밥을 먹다 말았다. 소제부 박 유경이가 식기를 받다가 물었다.

《왜 진지를 남기셨습니까. 어데 편치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픈 데는 없습니다.》

성호가 힘 없이 대답했다. 소제부가 얼른 알아 차리고 다시 말했다.

《댁에서 무슨 불길한 소식이라도 왔습니까?》

성호가 정신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요. 아무런 불길한 소식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안녕히 계시고 안해도 잘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해가 돈 까지 보내 주었군요.》

성호는 소제부를 안심시키기 위해 돈 이야기까지 했다. 소제부가 그제야 안심하고 돌아갔다.

이튿날 성호는 간수장에게 안해에게 편지를 쓰게 해 줄 것과 면회를 시켜 달라는 말을 했다. 간수장이 승낙했다.

성호는 오래간만에 안해에게 편지를 썼다. 그런데 형무소 안에서 쓰는 편지는 봉합 엽서 한 장 이상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다 쓸 수 없었다. 성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당신에게서 온 여러 장의 편지를 받는 것도 또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 것도 어제와 오늘에야 허가 되였소. 오늘에야 당신이 보낸 돈도 받았소. 고생스러워 식모살이를 어떻게 하오. 당신이 함흥에 있다고 내게 더 리로울 것은 없소. 나를 위해 특별히 고생할 필요는 없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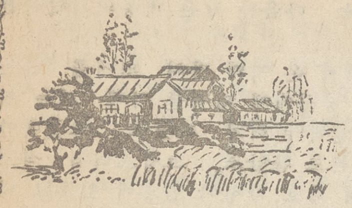
나는 당신만 잘 있다면 모든 시름, 걱정을 다 저바리겠소.

몸을 돌봐주오. 앞으로 살아 갈려면 (이것은 사실 싸울려면 하는 말과 같다. 그런데 싸운다는 말만 써도 불온하다고 형무소에서 지워 버리거나 편지를 내 보내지 않는다.) 몸이 제일 튼튼해야 하오. 참 이번에 면회까지 허락을 받았소. 한 번 면회를 와 주오…》

성호는 정성을 담아 주소와 성명을 써서 담당 간수에게 주었다.

(다음 호에 계속)





황금'벌의 주인

황주군 황주읍 농업 협동조합 제 7 천리마 작업반
김 종순

나는 언제나 황금 파도 설레이는 가을의 록재'벌을 거닐 때나 멀리 지평선에 아지랑이를 피우며 구수한 땅 냄재를 한껏 안겨 주는 봄날의 들길을 거닐 때마다 자신도 억제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가슴에 출렁이군 한다.

참으로 우리 고향'벌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만년 흉풍을 모르는 고향의 록재'벌…

그러나 과거 이 기름진 벌은 누구의 것이였던가. 왜놈들의 등을 믿고 의시대던 로 정록과 같은 지주 놈들이 도사리고 앉아 주인 노릇을 하였었다. 그때 나의 부모들은 지주 놈들의 막사리 노릇을 하면서 갖은 천대와 학대를 받아 왔었다. 해마다 가을 추수때가 되면 타작마당에서 소작료와 빗 때문에 1년 내내 지은 곡식을 몽땅 빼앗기고 빈손을 털고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는 온갖 빗 때문에 집까지 빼앗기고 말았다.

참으로 그 때 록재'벌 사람들은 눈물과 한숨 속에 세월을 보내였다.

그러나 오늘 록재'벌의 주인은 바뀌여 졌다. 어지돈 관개 공사장에서 어머니 젖줄기인양 뻗어 온 수로로는 푸른 생명수 흘러 록재'벌을 적시고 전야마다 마을 마다에 뜨락또르, 자동차의 엔징 소리 드높다. 야산에는 과원이 무르익고 벌엔 황금 파도 설레이는 땅, 지금 록재'벌에서는 수천년래의 오막 살이들을 헐어 버리는 위대한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

처마를 잇닿고 줄느런히 일떠 서는 문화 주택들…학교며 상점, 탁아소들, 노래 부르는 스피카! 그야 말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오늘 록재'벌 사람들의 생활은 또한 얼마나 풍부하며 행복한가! 지난해 우리 집에서만도 알곡 3 톤 200에 현금 1,200원이나 분배받았다. 정말 옛날의 부자놈 부럽지 않다.



아름답고 풍요한 록재'벌, 나는 이 벌에서 자기의 꿈과 리상을 꽃피우려고 초중을 졸업하자 고향으로 달려 왔었다.

그때로부터 나에게는 그 얼마나 보람찬 로동과 배움의 나날이 흘렀던 것인가!

나는 사랑하는 고향의 품에 안겨 통신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2 년 후이면 공화국의 어엿한 농산 기수로 된다.

또한 당은 나에게 민청 부위원장의 영예로운 직책을 맡겼으며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인 천리마 기수로, 민청원의 최대의 영예인 조선 로동당의 후보 당원으로 키워주었다. 올해에도 내가 책임진 작업 분조에서는 벼 수확에서 군'적으로 제 1 위의 성적을 쟁취하였다.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더 좋을것이다.

시간이 앞으로 전진할 수록 나에게는 얼마나 훌륭한 미래가 약속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나의 리상과 청춘은 록재벌의 품에서 활짝 꽃피고 있다. 록재'벌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준 당,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안겨준 제도와 주권! 나는 이모든 것을 소리 높이 자랑한다. 나는 선거권을 가졌다.

나는 우리의 주권과 제도를 반석처럼 다지는 영예로운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당당한 선거자로 처음 선거에 참가한다. 나는 이제는 한갖 이름 없는 철부지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는 높은 긍지가 청춘의 가슴에 도도히 물'결쳐 오른다. 나는 이 영광, 이영예, 이 기쁨을 지니고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참가하리라! 그리고 이번 선거를 높은 로력적 성과로 맞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통하여 알곡 500만 톤의 고지 우에 보다 찬란한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리라!





어머니에게

평방 편직 공장 메리야스 가공 직장
딸 리 염조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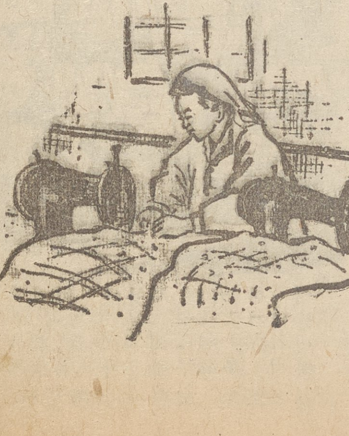
존경하시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는 이 저녁 나의 기쁨을 누를 길 없어서 어머니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글쎄 며칠만 지나면 몇해 전까지 거치른 이국 땅에서 천대와 굴욕 속에 딩굴던 제가 영광스러운 우리의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당당한 공민증을 손에 들고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어머니도 저와 꼭 같은 심정으로 잠을 못 주무실거예요. 어머니 기뻐 해 주세요.

오늘 우리 공장에서 있은 종업원 총회의 연단에 올라가 저는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를 지지하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이 편지를 받으면 《저런, 네가 종업원 회의 에서 토론을 다 했다구? 머슴'군의 딸이던 네가…?》

하고 놀라시겠죠.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바로 그러한 머슴'군의 딸이였길래 더 소리 높이 우리의 제도와 주권에 대하여 떳떳이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에 없던 버릇이 하나 생겼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달려가 력서를 번지고 손'가락을 굽혀 보며 날'자를 헤는일 말이애요. 그리고 나서는 선거장으로 달려 가는 기분으로 공장 길을 마구 달려가군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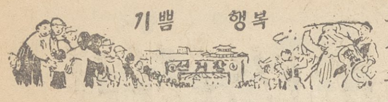
어머니, 이렇게 행복할 때일수록 나는 일본에 있을 때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홉살 때부터 부모를 여이고 열다섯해 긴긴 세월 지주'집 머슴 살이를 하다가 끝내나 살길이 막혀 하는 수 없이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온 아버지에 대한 구슬픈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셨지요?

지금도 나의 눈 앞에는 아버지가 일하시던 야마구찌현 도요우라군의 깊은 산 속에서 숯구이 하시면서 고역에 시달리고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던그 세월이 떠오릅니다.

생각할수록 몸서리 쳐집니다.

그때 잘 살던 일본놈 아이들이 나를 보고 《숯쟁의 딸》이라고 놀려주던 일이 어제 일 같이 생각납니다.

나는 그때 어느 개인 경영의 양재 학원에 입학 했다가 월사금 때문에 쫓겨 나오고는 온



기쁨 행복

종일 집에 와서 울었지요. 참 말이지 어머니, 나는 그때처럼 조국이 없는 슬픔을 맛본 때는 없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오직 조국의 따뜻한 품에 안겼기에 오늘은 세상에 부러움 없이 살고 있으니 이 이상 더 좋고 행복한 일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머니! 나는 벌써 금년도 년간 계획을 8월 31일까지 100프로로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6급 기능공이 되였습니다.

나는 지금 공장에 있는 민청 열성자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나는 지금 전력을 다해 공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평양 방직 공장 민청 위원으로 떳떳하게 일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 모든 행복과 보람을 안겨 준 것은 조국이얘요. 그러기에 나는 나에게 오늘의 행복을 안겨 준 조국을 위해서라면 물 불을 가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나는 년간계획을 반드시 150프로 이상 넘쳐 실행하겠습니다. 10월 8일 첫 새벽에 제일 먼저 첫 선거자의 기쁨을 안고 선거장으로 달려가 찬성 투표하렵니다. 어머니도 그날 아침 제일 먼저 선거장으로 달려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만수 무강을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1962. 9



작은 가슴 불태우며

선박 설계 연구소

기수 김 상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척 소중하고 귀중한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오직 우리의 영광스런운 조국, 우리의 당, 우리의 주권이 있음으로써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제'날 가난에 부대끼던 한 소작농이 딸이였습니다. 기실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긴긴 여름날에도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과 풀로 연명했으며 추운 겨울 밤에도 북데기를 덮고 지나던 형편이였답니다.

오직 조국과 고마운 주권이 있길래 나는 기수가 되였고 현재 김책 공대 통신 학부 3학년에서 일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두 해가 지나면 한 사람의 녀성 기사가 됩니다. 소작농의 딸이던 내가 당당한 기사가 되다니 옛날 같으면 어디 이런 일을 생각인들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지난번 내 손으로 533 호 선박과 424 호 선박도 설계하였고 지금은 51 호 선박 설계에 달라 붙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수천 톤 급의 최신식 대형 선박을 설계하여 약동하는 청춘의 바다로 띄워 보내겠습니다.

나는 지금 랑만에 찬 앞날을 환히 내다 보고 있습니다.

《…녀기사 동무! 이 배를 동무가 설계 했다지요. 아주 훌륭합니다. 어떠한 태풍에도 드놀지 않지요. 저기 보십시요. 금시 퍼올린 고기가 통조림으로 나오고 그 힘들던 어로 작업도 자동화가 됐군요. 무대가 있으니 영화도 볼 수 있구…》하며 갑판 우에서 기뻐 어쩔줄 모르는 어로공들의 얼굴이 안겨옵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 무한히 행복합니다.

나를 오늘과 같은 당의 기술자로 키워 주었고 앞으로도 나의 꿈을 꽃피워 줄 고마운 주권을 위하여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높은 로력적 성과로 맞을 념원으로 적은 가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년간 계획을 8월 말까지 완수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것만 같습니다.

당과 조국은 나를 당당한 선거자로 자래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처음 참가합니다.



이 기쁨 무엇에 비기겠습니까, 10월 8일 아침이 오면 나는 정성의 한표를 들고 찬성 투표하려 선거장으로 선참으로 달려 가겠습니다.



조국이여 길이 번영하라

리 판준

(1)

《창국아, 너도 저기에 가서 애들과 함께 뛰여 놀려므나.》

동리 아이들이 썰매를 타며 고아대는 연못을 바라보던 창국이의 아버지는 양지쪽 바람'벽에 엉거주춤히 기대여 서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웬 일인지 창국이는 대답 대신에 작은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갈기갈기 찢어진 바지'가랑이 사이로 벌겋게 나온 무릎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서 있는 아들을 본 창국이의 아버지는 그제사 모든 것을 짐작했는지 《에잇, 빌어 먹을 놈의 세상…》하고는 지게를 지고 어데론가 휙 나가 버렸다.

이 날 아침 연못으로 놀려 나갔던 창국이는 지주의 아들 놈이 거지도 상거지가 왔다고 막대기로 쿡쿡 찌르며 놀려주는 바람에 그만 들어 왔던 것이다.

열두살 나는 창국이는 집이 너무 가난하여 남들처럼 학교에도 갈 수 없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세 동생과 함께 김 병선이란 지주놈의 머슴살이를 하여야 했다.

창국은 돼지물을 준다, 나무를 해 온다, 뜰악을 쓴다, 힘에 겨운 고역이 꼬리를 물고 들씌워져 잠시도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일을 부지런히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창국이만은 소학교라도 졸업시켜 남의 축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마음 먹었던 그의 부모들은 처참한 이 광경을 볼 때마다 남 몰래 가슴을 쥐여 뜯으며 북받쳐 흐르는 눈물을 삼키군 했다.

하루는 뜻 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이 날 창국이의 아버지는 먹을 것이 없어 아침도, 점심도 못 먹은 채 지주놈의 수차(낮은 논에서 높은 논에로 물을 끌어 올리는 나무 바퀴)를 돌리려 나갔었다. 가뜩이나 영양 부족으로 몸이 쇠약해진 데다가 두 끼씩이나 밥을 굶은 창국이의 아버지가 그전처럼 수차를 돌릴리는 만무했다.

이때 술에 잔뜩 취한 지주놈이 나타났다. 지주놈은 한발만한 담배'대를 허공에 내저으며 《이 밥도적 놈 같은 자식, 그렇게 굼벵이처럼 꾸물대다가는 밥값도 못하겠어, 그러다간 아예 더는 우리 집에 있을 꿈도 꾸지 말아, 앙》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허 참…》

할대로 하라는듯 창국이의 아버지는 혀를 차며 한마디 쏴 붙였다.

《뭐 어쩌고 어째? 내 저기에 앉아서 네 놈이 낮잠만 자는 것을 못 본 줄 아느냐? 앙, 이 고약한 놈.》

그 놈의 징그러운 손아귀가 창국이 아버지의 목덜미를 움켜쥐려는 순간이였다. 까만 눈'동자를 도룩거리며 이 광경을 살피던 창국의 팔뚝이 잽싸게 움직이더니 지주놈은 《아이쿠—》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처절썩 논판에 나자빠지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지주의 집에서 쫓겨난 창국이의 일가는 꽁무니에 바가지를 차고 정처 없는 행랑의 길을 떠났다.

그러던 중 창국의 일가 식솔들에게는 가슴 사무치는 설음이 악마처럼 닥쳐왔다. 고된 로동과 영양 부족으로 병석에 누운 창국이의 어머니는 약 한첩 온전히 써 보지 못하고 원한 많은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오직 해방된 조국의 품만이 그들 일가에 새 생활의 길을 열어 주었다. 그의 집은 나라로부터 3,000 여 평의 토지를 분여 받았다.

날과 달이 바뀌여짐에 따라 그의 집 살림살이는 늘어만 갔다. 생활이 유족해질수록 창국은 마음 속 깊이 사무친 지나 온 나날이 떠

올라 계급적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누를 길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1950년 3월 조선 인민 군대에 입대하였다.

(2)

소위 《정예 부대》라고 떠버리던 미 해병 1 사놈들이 둥지를 틀고 있던 811.7 고지는 간무봉에서 소양강을 끼고 남쪽으로 길게 뻗어진 릉선 우에 놓인 한 고지이다.

바로 이 고지 앞에 아군이 차지한 신발 고지가 있다. 말하자면 신발 고지는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811.7 고지를 탈취함에 있어서 전술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고지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놈들이 신발 고지를 손톱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적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신발 고지를 탈취해 보려고 하루에도 수십대의 비행기와 전차의 엄호 하에 련속적인 공격을 감행해 왔다.

1951년 12월 중순!

공화국 영웅 리 창국 동무가 속해 있던 리 철훈 소속 중대 앞에 신발 고지를 방어할 데 대한 무겁고도 영예로운 전투 임무가 부여되였다.

《당과 수령의 크나큰 기대에 기어코 보답하자!》

《원쑤들에게 무리 죽음을 주고 신발 고지를 끝까지 사수하자!》 전투 임무를 접수한 전투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충천하였다. 당원들과 민청원들은 총창을 수풀처럼 흔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발 고지를 끝까지 지켜내고야 말리라는 억센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1952년 1월 23일 새벽, 신발 고지에 대한 수십 차례의 공격에서 만회할 수 없는 참패를 거듭한 미 해병 1 사의 1 개 중대는 다시 력량을 수습해 가지고 40 여 문의 포와 5 대의 전차 엄호 하에 악착스럽게 덤벼 들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811.7 고지와 그 좌우 릉선에 배치되여 있던 적의 전차들도 신발 고지에 집중적으로 포 화력을 퍼붓기 시작했다.

고지는 또다시 불바다 속에 잠기였다. 놈들의 폭격과 포격에 동강났던 나무 등걸들은 다시 뿌리채 파헤쳐져 공중으로 날려갔다.

그러나 한 치의 땅도 적에게 내여 주지 말라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가슴 깊이 간직한 당의 붉은 전사들은 몇번이고 전호 속에 파묻혔다가는 불사조마냥 다시 헤치고 나와 《원쑤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자!》

《고지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다!》라고 웨치며 기여드는 놈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들씌웠다.

500 메터! 놈들은 무리죽음을 당하면서도 제놈들의 수'적 우세를 코에 걸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인제는 적 전차의 엔진 소리 뿐만 아니라 고래고래 고함 치는 적 《독전대》의 발악 소리, 아군의 불벼락에 썩은 바자처럼 나자빠지는 놈들의 단말마적 비명 소리까지 확연히 들려왔다.

고지는 위험에 처했다.

《나는 심장이 고동치는한 어떤 원쑤도 고지 우에 올려 놓지 않겠다고 당과 수령 앞에 맹세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한 창국이는 벌떡 몸을 일으키고 소대장에게로 달려 갔다.

《소대장 동지! 나에게 저 놈의 전차를 까부실 임무를 주십시오.》

소대장 리 순전 동무는 창국이의 이러한 말을 듣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 보았다.

—창국 동무는 조국 해방 전쟁이 개시되자 서울 해방 전투에 참가하였고 계속 대오의 선두에서 보병총으로 단신 열 두 놈의 적병을 찔러 눕혔다. 그는 이 전투에서 중상을 당하고도 전투 서렬에서 결코 떠나려 하지않았다.

그 후 창국 동무는 5 차 작전에서 적 30 여 명을 살상하였다.

한번 마음 먹은 일이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 내고야마는 창국이의 성미를 잘 알고 있는 소대장은 《부탁하오!》 하며 그를 힘껏 그러안았다. 수류탄 배낭을 걸머지고 량 손에 반전차 수류탄을 억세게 틀어 쥔 창국 동무는 비'발치는 탄우 속을 뚫고 쏜살 같이 고지 아래로 내리뛰였다.

그의 가슴 속에는 사랑하는 전우들의 원한이 스며 있고 끝까지 고지를 지켜 달라던 동지들의 절절한 부탁이 맥박 치고 있는 조국의 고지 우에 어떤 원쑤도 기여 들지 못하게 하리라는 비장한 결의가 세차게 소용돌이쳤다.



그렇다!

미국 승냥이 무리들을 절대로 조국의 고지 우에 올려 놓을 수 없다.

조선 사람치고 누가 그러하지 않으랴만 더더구나 악독한 지주 놈의 머슴 살이로 어린 시절을 빼앗기고 조국이 없는 백성들의 설음이란 그 얼마나 눈물 겨웁고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직접 체험한 창국이의 경우에야 어떻게 이를 용서한단 말인가!

창국이는 반전차 수류탄을 힘껏 그러안고 비'발치는 탄우 속을 헤치며 한치 한치 기여 나갔다. 바로 코 앞에는 전화선을 늘이며 전차를 따라 오는 놈들, 탄약 상자를 메고 올리 뛰고 내리 뛰는 놈들, 부상병 놈들의 아우성 소리등 일대 수라장이였다. 맨 선두에서 달려 오던 적 전차가 문득 멎었다.

《아, 발견되였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한 창국이는 가슴을 조이며 그 자리에 납작 엎디였다.

그런데 선두 전차의 룩크가 벌컥 열리더니 키다리 양캐 한놈이 노란 눈깔을 굴리며 불쑥 내려와서 무한 궤도를 검열하기 시작했다.

《됐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이 앞선 창국이는 이 기회를 노침 없이 벌떡 몸을 일으키며 힘껏 반전차 수류탄을 던졌다. 무한 궤도를 돌아 보던 양캐 놈은 하늘로 올라 갔으나 전차는 방향도 없이 무턱 포를 쏘아 대며 다시 굴러 오기 시작했다. 적 전차 우에 번개처럼 뛰여 오른 창국이는 손에다 쥔 수류탄을 룩크 문으로 집어 넣고는 날쌔게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살인귀들의 숨통이 끊어지는 비명 소리와 함께 적 전차는 못 박힌듯 그 자리에 서 버렸다.

그제야 창국이를 발견한 놈들은 발악적으로 총질하며 덤벼 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반전차 수류탄 한 개와 수류탄 주머니였다.

조국! 나의 조국!

억천 만번 불러 봐도 정다와만지는 이름.

바로 오늘의 이 조국을 위하여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 투사들은 박달나무도 쩡쩡 얼어 터지는 백두의 밀림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던가!

오직 당과 김 일성 원수가 계심으로 하여 난생 처음 제 땅을 가져 보던 날, 아버지는 얼마나 기쁨과 감격에 목이 메여 눈물을 흘렸던가! 그런데 나의 이 조국 땅을 어느 놈이 삼키려고 한단 말인가! 창국이는 반전차 수류탄을 억세게 그러안았다.

《단 1 초가 새롭다. 어서 빨리 저놈의 전차를 까부시자.》 그는 흰 눈 우를 쏜살 같이 기여 나갔다.

적탄은 사방에서 비'발치듯 쏟아졌다.

그러나 당의 전사된 영예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생명의 두려움을 모르고 달려 나가는 그의 앞길을 막는 자는 온 세상에 없었다.

어느덧 창국이는 굴러 오는 적 전차의 3 메터 앞까지 맞받아 나갔다.

—당과 수령을 위함이라면…조국이여! 길이 번영하라!

반전차 수류탄을 두 손에 으스러지게 틀어쥔 그의 가슴에는 오직 이 한 가지 신조만이 맥박 치고 있었다. 드디여 놈들의 코 밑에 접근한 그는 날쌔게 몸을 날려 적 전차 밑으로 뛰여 들었다.

《꽈광…》

백악관을 통채로 녹여 치우는 듯한 굉장한 폭음 소리와 함께 적 전차는 무서운 불'길에 휩싸이고 조국의 고지는 끝까지 사수되였다.

그러나 용감한 전사 창국 동무는 끝내 대오로 돌아 오지 못했다. 비록 그는 조국의 한치 땅을 붉은 피로 물들이며 쓰러졌으나 영웅이 발휘한 불굴의 투지와 애국심은 오늘도 우리의 심장 속에 살아 있다.



《전사들은 고지에서 물러선 일이 없소.》

지난 8월 중순 어느날—

탄광 참모부로부터 재로운 전투 임무를 받고 갱으로 돌아 오는 김 진태 소대장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이 어렸다. 더우기 자기의 손을 굳게 잡아 주며 하시던 당 위원장의 목소리가 자꾸만 귀'전을 때렸다.

《…그러니 금년에 우리 탄광에서 계획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동무들에게 전'적으로 달렸소. 즉 이 일은 굴진을 생산에 선행시킴에 있어서 결정적 고리로 됩니다.》

그 내용인즉 이러하였다.

…금년도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전투에서 이곳 삼신 탄광에서는 대안과 안주 탄광에서 하신 수상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지도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한결같이 일떠선 결과 지난 해보다 128 %나 장성한 상반년 계획을 지표별로 각각 6월 19일까지 훌륭히 완수하였다. 로동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그런데 하반년도에 들어서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만약 제때에 재로운 갱도를 개발하여 탄을 캐지 않는다면 금년도 탄광 앞에 부과된 계획을 달성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 조성되였다. 바로 신갱 개발에 대한 이 어렵고 긴요한 임무를 김 진태 천리마 청년 소대원들이 맡았던 것이다.

진태네 청년 소대에 대해 말한다면 전 탄광이 기둥처럼 믿고 있었다. 그들은 탄광 내에서도 제일 먼저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탔었고 상반년 계획도 6월 6일 현재로 남먼저 완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증산하며 절약하라는 당의 구호를 받들고 낡은 갱목들을 리용하여 막장에서 《5매 합장 동발법》을 적용함으로써 지난 상반년 기간에만도 3 개월분의 신갱목과 암석 300 메터를 굴진할 수 있는 막대한 폭약을 절약하였다. 설비 리용률 제고에서나 기술 학습에서도 모범이여서 불과 1 년 미만에 소대원들의 평균 기능 급수를 4,5급으로부터 5,5급으로 높였고 매개인이 천공, 지주, 적재, 운전 등을 할 수 있는 다기능도 습득하였다. 이를테면 그들은 어느 모로 보나 나무랄데 없는 호랑이 같은 굴진공들이였다. 때문에 이번 탄광 참모부에서는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이 신갱 개발 임무를 맡겼던 것이다.

(물론 이 일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이 하라는 이 일은 꼭 해내고야 말테다.)

그가 현장에 돌아 오니 소대원들이 와르르 달려와 그를 에워쌌다. 착암기만 틀어 쥐면 힘이 저절로 난다는 선경 동무, 언제나 재로운 작업 방법을 연구하노라고 애쓰는 응기, 서글서글하며 웃기 잘하는 소대 민청 위원장 한섭이, 떠들석하는 홍근이… 그들의 믿어운 얼굴을 보는 순간 진태에게는 재로운 신심이 솟구쳐 올랐다.

《자! 모두 앉소. 내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지.》

진태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먼저 땅에 있는 갱목에 걸터 앉았다. 소대원들 역시 그를 에워싸고 앉았다. 진태는 자기 소대에 하달된 재로운 전투 임무에 대하여 차근차근 이야기 한 후 웃으며 넌지시 물었다.

《어떻소? 자신들 있소?》

《네 있습니다.》

소대원들은 일시에 대답하였다. 진태는 그들의 가슴에 더욱 뜨거운 불'길을 지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내 하나 지나간 이야기를 하리다. 나는 전쟁 시기 어느 한 공병 구분대에 속해서 월비산을 공격한 일이 있었소. 나는 그때 5인조에 속해서 적들의 화'점을 까부실 임무를 맡았소. 그런데 우리가 맡은 화'점은 닭알같은 바위 우에 교묘하게 음페되여 있어서 그 어떤 수단으로서도 까부실 수 없었소. 일이 그렇게 되자 우리는 적들의 바로 턱 밑에서 화선 당 분조회를 가졌소. 그 때 당 분조장인 김 병모 동무는 이렇게 말했소. <동무들! 우리에게는 한 걸음도 물러설 권리가 없소. 오직 하달된 전투 임무를 실행할 임무만이 남아 있소. 자 그럼 뒤'일을 부탁하기오.> 이런 말을 남기고 그는 우리들이 미처 말릴 재도 없이 닭알같은 바위 우로 뛰여 오르더니 자기의 가슴을 활짝 벌려 원쑤들의 화구를 틀어 막았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소대원들의 얼굴엔 심각한 빛이 어렸다. 진태는 마지막 말에 힘을 주었다.

《물론 우리 앞에는 이러저러한 난관이 있을 수 있소. 그러나 명령을 받은 전사에게는 하등의 주저와 동요도 있을 수 없소. 오직 고지에 대한 점령만이 있을 뿐이요. 여기도 전선이요. 동무들! 우리도 피끓는 청춘의 가슴으로 고지를 점령합시다.》

이날 저녁 진태 동무를 비롯한 소대원들은 신갱 굴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걷기 위한 불같은 결의들을 다졌다.

《120일 전투》의 앞장에 서서

아무 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널판자로 꾸린 한 채의 휴계실이 생겼다. 그리고 그 옆에는 두개의 갱구가 재로 뺑하니 뚫렸다. 진태네 작업 현장인 것이다.

누구인가가 그 갱 입구에 《청년갱》이라고 붉은 도료로 커다랗게 써 붙였다. 갱도 옆에는 권양기며 압축기가 설치되였고 갱도 안으로는 두 줄기의 레루가 번쩍거리며 힘차게 뻗어 들어 갔다.

소대원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끓끓어 번지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황해 제철소에 대한 수상 동지의 현지 지도가 있은 후부터 그들의 기세는 한층 더 고조되였다.

《수상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모두다 120일 전투에로!》

《120일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자.》

모든 심장들이 이렇게 웨치고 있었다.

그들은 첫 재벽에 일터로 달려 나왔고 일이 필한 후에도 작업장에서 떠날 줄 몰랐다. 민청 위원장 안 한섭 동무나 송 홍식, 신종실, 리 찬혁 동무들은 불배기로 현장에서 살다 싶이 하였다. 창의 고안의 명수 조 응기 동무는 짬짬이 재 작업 방법을 연구하느라고 은근히 땀을 빼고 있었다. 그는 하루가 멀다하게 진태에게 달려 와서는 로력 조직을 여사여사히 하여 병렬식 작업 방법을 도입하자느니, 2 중 심 발파법을 적용하자느니 하고 제의하였다. 그러면 진태는 언제나 웃는 낯으로 이 지칠줄 모르는 청년의 어깨를 뚜두려 주고는 그의 제의를 기꺼이 받아 들이군하였다. 그들은 착암기에 쓰는 정도 종래까지의 《개발정》 대신에 《분리식 십자형 정》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종전보다 131 %나 작업 능률을 높였다.

때로 그들의 일터에서는 갱도를 들었다 놓는 듯한 우렁찬 혁명 가요와 손풍금 소리가 터지군하였다. 각 교대별로 증산 경쟁이 체결되고 승리한 갱구옆에는 민청 기'발이 힘차게 나부끼였다.

이런 기세를 그 누가 막을 수 있으랴! 그들은 불과 10 여 일 동안에 신갱을 50 메터나 뚫고 들어 갔으며 그렇게도 긴장되였던 8월분 계획을 109.4 %로 빛나게 완수하는 위훈을 세웠다.

9월에 잡아 들면서 그들은 한층 더 높은 계획 과제를 자기들 앞에 내세웠다. 즉 한달 동안에 150 메터의 굴진 속도를 보장하며(이것은 사갱에서 월 60 메터의 굴진을 보장할데 대한 서부 지구 탄광 당 열성자 회의의 결의에 비추어 볼때 그야말로 커다란 혁신이 아닐 수 없었다.) 소대의 년간 계획을 다가 오는 10월 8일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일 전으로 끝마칠 것을 결의해 나섰던 것이다. 이런 일은 다만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

하는 사람들에게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일이다.

요즈음 진태는 아예 현장에서 떠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키가 껑충한 그의 모습은 첫 교대 때에도, 둘째번 교대 때에도 작업 현장에서 볼수 있었다. 동무들이 자꾸만 말릴라치면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 조금만 더 하다가 들어가지 않으리.》

그러던 어느날 탄광 당 위원장이 그를 불렀다.

《진태 동무! 이번에 당은 동무에게 가족 휴양을 보내기로 하였소. 경치 좋은 주을에 가서 한달 푹 쉬다가 오우》

당 위원장의 간곡한 말에 진태의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얼마나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당의 따뜻한 배려인가!

진태는 집에 돌아 와서도 잠들줄 몰랐다. 자꾸만 쭉쭉 뻗어 들어가는 《청년갱》이며 사랑스러운 소대원들의 얼굴이 눈 앞에 얼른거렸다. 옆에서는 안해가 남편으로부터 가족 휴양을 간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의 옷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것을 보는 진태의 가슴은 더욱 괴로워났다.

(그러나 6 개 고지의 마지막 정'점을 점령하기 위한 120일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용군 28일 간이나 쉬고 있겠는가? 더우기 신갱 개발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의 눈 앞엔 《북사리 갱》에서 일하는 몸이 약한 한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옳지! 그 친구에게 이 가족 휴양권을 양보해 주자! 그는 나 보다 몸이 약하지 않는가. 그런데 안해가 어떻게 생각할런지.)

그는 안해를 흘깃 쳐다 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바를 쭉 이야기하였다. 그랬더니 안해는 한편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서 당신 좋을대로 하구려. 지금처럼 일이 바쁜 때에 휴양가면 당신같은 성미에 휴양이 바로 되기나 하겠수.》

과연 탄부의 안해다운 말이다. 다음날 아침 《북사리 갱》 동무를 찾아가 가족 휴양권을 쥐여준 그는 한달음으로 막장에 달려 왔다. 그를 본 소대원들이 놀라며 물었다.

《소대장 동무! 어찌된 일입니까? 휴양은?》

《념려 말라구, 신갱 개발이 끝나면 푹 쉬지 않으리.》

진태는 웃으며 착암기를 틀어 잡았다.

드디어 광부절을 앞둔 어느날—

그들이 일하는 막장에서는 우렁찬 환성이 터져 올랐다. 첫 탄'줄이 나타났던 것이다. 탄부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뚫은 갱도에서 첫 탄맥이 발견된 때처럼 기쁠 때가 또 어데 있으랴!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돌아 가면서 만세를 웨쳤다. 한편 구석에서 용기가 달려나와 반짝거리는 탄'덩이를 주어 들고 볼에 비볐다.

《야 검은 금이 나왔구나…》

그는 어린애처럼 껑충껑충 뛰였다.

이날 탄광 민청 위원장과 함께 현장에 내려온 당 위원장은 그들의 손을 일일히 뜨겁게 쥐여 흔들며 말했다.

《장하오. 동무들! 이젠 우리 탄광의 년간 계획도 문제 없이 되였소. 이건 모두 동무들이 당의 방침을 받들고 굴진을 생산에 선행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혁신을 이르킨 때문이였소.》

청년 소대원들의 가슴마다엔 당이 준 과업을 완수한 기쁨과 아울러 다함 없는 청춘의 긍지가 도도히 물'결처 올랐다.

《위원장 동지! 우리는 금년 년간 계획도 기어코 10월 8일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일 전으로 끝마치고 말겠습니다.》

진태가 소대원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말씀드렸다. 때마침 불어 오는 초가을 바람을 안고 그들이 개발한 《청년갱》 입구에서는 민청 기'발이 더욱 힘차게 펄펄 나부끼였다.

본사 기자 한 희만

(시)



굴진공, 그들은 공격수

최 진 용

비오듯 하는 석수 속을 헤치고
다가서는 암벽을 얼마나 뚫었으며
무너지는 지층에 갱목을 갈아 대며
올리굴 내리굴은 몇 십리더냐.

오늘도 2배의 천공 2배의 굴진
요란한 발파로 지심을 뒤흔들며
담벽 같은 가슴에 시대의 자랑과 투지를
　　안고
재탄맥 밀고 나가는 그 곳은 격전장.

지하 천척에서 싸우는 용사들이여!
그대들이 캐내는 건 천연의 검은금
그 갱에 닿았다, 용광로나 해탄로들,
무지개 어리는 비날론과 합성 고무도,
아이들의 염화비닐 비옷과 책가방도…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그대들의 가슴
보화를 가득 싣고 달리는 차량들을 볼때,
수많 굴뚝에서 황금의 연기 피여 오를 때,
웅장하게 일어서는 새 화력 발전소들을
　　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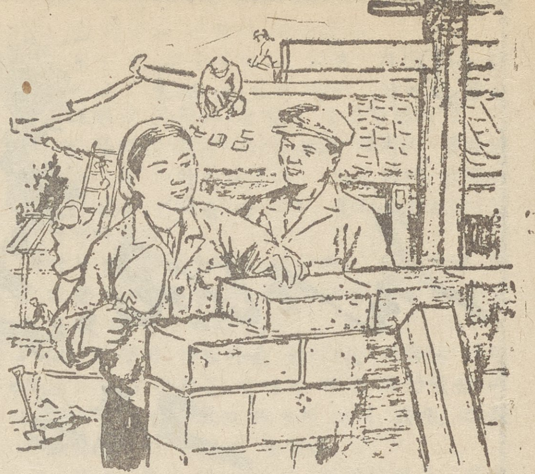
그대들이 캐내는건 우리 공업의 량식
그 갱은 6 개 고지 점령의 보람찬 전선
땅 밑 천리 앞 내다 보며 암석을 헤치는
그대들은 착암기를 틀어 잡은 공격수.

아 그 탄으로 심장을 끓이며 조국은 나간다.
온 나라 방방 곡곡에 기적과 혁신의 번개
　　일쿠며
집들은 솟고 쇠'물은 흐르며 어선대는 출
　　동을 한다.
천리마는 번영하는 땅을 나래치며 더 높이 굽을 놓는다.

영예를 드린다. 우리의 젊은 탄부들이여
더 요란한 발파로 온 땅을 뒤흔들라
내 닫는 전차마다에 탄괴를 그득 그득
무진대의 그 재부로 황금의 산을 더욱 높
　　이 쌓으라!

그 발파 소리에 지심은 떨고 탄맥들 무너
　　앉는다.
그 소리에 백아관이 떨고 원쑤들 아우성
　　친다.
우리 기어히 점령할 1,500만 톤의 승리한
　　고지 우에서
사회주의 공업국의 휘황한 래일을 소리
　　높이 노래하자!

속도를 늦추지 말라



(1)

《120일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자!》라는 구호가 나붙은 황주군 제 1 농촌 건설대 2 중대 작업 현장에서는 《1인 5세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벽채를 담당한 소대에서는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열넷이서 하던 일을 여덟이서 해내고 목공과 기초 축조를 담당한 소대들에서는 소 기계화를 적극 도입하여 종래의 두배의 일을 해내고 있었다.

그러나 품이 기중 많이 드는 미장 소대에서만은 아직 이렇다 할만한 혁신이 없었다. 사실 그들이 자기 앞에 제기된 과제를 완수하려면 현재의 로력으로 2 배 이상의 일을 해제껴야 했다. 그러자면 자체의 미장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반드시 보다 높은 속도를 가져다 주는 새 미장 도구나 새 작업 방법이 도입되여야 했다.

민청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다한 노력을 기우렸으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일에서 한 몫 봐야할 오랜 기능공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내 세우면서 그저 안될 일로만 생각하고 적극 나설려고 하지 않았다. 지어 20 년간의 미장 경험을 가진 소대장 최 성칠 아바이까지 여기에 대해서 쓰다 달다 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민청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민청원들은 분조 회의를 열고 도시 건설에서 배 이상의 능률을 올리고 있는 《바가지 미장》을 도입해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바가지 미장》역시 점토 성분이 대부분인 이 지방 농촌 주택 미장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못했다.

민청원들은 일이 제대로 안되는 안타까움에 누구라 시키지 않았건만 하루 일이 끝나면 사무실에 하나 둘 모여 들어 서는 《된다, 안 된다.》는 론의가 많아졌다. 성미 급한 청년들은 이 일을 포기해 버리자고 했다.

말 없이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라 서분 동무가 일어났다. 예쁘장하고도 오돌진 처녀의 얼굴에는 평소와는 다른 심중한 빛이 어리였다.

《동무들! 어떻게 새 작업 방법을 그리쉽게 생각해 낼 수 있겠어요. 문제는 그것을 끝까지 찾아 낼 줄 아는 굳센 의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더우기 우리는 수천년래의 오막살이를 헐어 버리고 이 땅우에 가난의 흔적을 영영 없애는 위대한 혁명 과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요….》

실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해 졌다. 그가 한마디 한마디 강조해 나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청원들은 저마다 당이 제시한 《120일 전투》 임무를 반드시 수행하리라는 굳은 결의를 다지는 것이였다.

(2)

한 편 최 성칠 아바이의 마음도 평온하지 못했다. 민청원들이 이악하게 일에 달라붙는 품이나 새로운 창의 고안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면 질 수록 그의 마음도 안달아 났다. 그도 새로운 작업 방법이 반드시 도입되여야 긴장된 로력을 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쉽게 되지도 않은 일에 힘을 빼앗겨 현재의 생산 진행에 지장을 주면 어쩐다 하는 위구심으로 이 일에 적극 나서지 못했었다.

어느 날 새벽 작업장에 나간 그는 한 자리에 못박힌 듯 굳어지고 말았다.

벌써 거기에는 작업 준비는 물론 종일 미장할 수 있는 일'감까지 말끔히 마련되고 있었다.

(응 소대장 몰래 야간 작업까지 하였구나. 참 좋은 청년들이라니까!)

그는 어저께 청년들이 반드시 매일 계획을 해내겠으니 새로운 창안 사업에 달라붙게 해달라는 민청원들의 제의를 다시금 생각하고 코'마루가 찡해졌다.

(참 훌륭한 청년들이야! 내가 아마 뒤 떨어진 모양이군…)

이런 때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과거가 회상되는 법이다.

그는 일제 때 송림시에 있은 《미노 구미》에 고용되여 미장 일을 하면서 갖인 천대와 학대를 받던 일이며 오막'사리 집 한채 없어서 뒤집허'간에서 밤을 새우던 일이 되살아 났다.

때마침 작업의 뒷 처리를 끝내고 돌아 가려던 서분이와 마주쳤다.

《아이구 소대장 동지! 이른 새벽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처녀는 감쪽같이 하려던 일이 들키워 당황했다.

그러나 성칠 아바이는 서서 유심히 그를 바라만 보고 섰다.

서분이는 20 년간의 미장 작업에서 반백이 가까워진 그의 머리칼을 존경어린 눈'길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런데 소대장 동지, 우리 민청원들은 모두다 경험이 어리고 기술이 어리지 안나요. 그러니 소대장 동지가 적극 지도해 주셔야지, 새 작업 방법은 생각 못해 낼 것 같애요.》

《응 네 말이 옳다. 그래야 하구 말구.》

그의 마음 속에는 약동하는 젊음이 다시 되살아 나는 듯 하였다.

(3)

결코 진리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는 윤 영택 동무가 미장하든 흙칼을 집어 던지고 일'감을 받쳐지는 판대기로써 미장을 해 보았다. 그랬더니 뜻 밖에도 미장은 되였으며 그것도 빠른 속도로 해 나갈 수 있겠다는 짐작이 가게 되였다. 그날 저녁으로 그는 넓이 40센치 평방 가량되게 곱게 다듬은 나무 판대기에 손잡이를 묘하게 붙여 새 미장 도구를 하나 만들었다. 다음 날 점심짬에 나가서 시험했더니 미장이 매끈하게 잘 되면서도 속도는 배이상 빨리 나갈 수 있었다.

며칠이 안가서 매개 동무들의 손에는 새 미장 도구가 쥐여 졌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가지 못해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였다. 그것은 판대기에 물이 배이고 흙이 스며들어 무거워서 일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기민하게 움직일 수 없어 속도가 늦었으며 중요하게 건설의 질을 잘 보장할 수 없게 되였다. 그렇다고 3~4일에 한번씩 도구를 바꾼다는 것도 매우 불합리한 일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리 성칠 아바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작업장에 나타났다. 얇은 철판으로 만든 새 미장 도구였다. 자기의 소극성을 뉘우친 아바이는 민청원들이 만든 목재 미장 도구는 며칠이 못가서 쓰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윤 영택 동무가 만든 것을 참고로 자기 경험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도면을 완성하였다. 그래서 철공소에 가서 철판으로 만들어 온 것이다.

민청원들은 모두 아바이의 손을 붙들고 기뻐 어쩔 바를 몰라 했다.

영택이가 제일 먼츰 도구를 조심스레 받아 쥐고 모든 동무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서 새 도구를 불이나게 놀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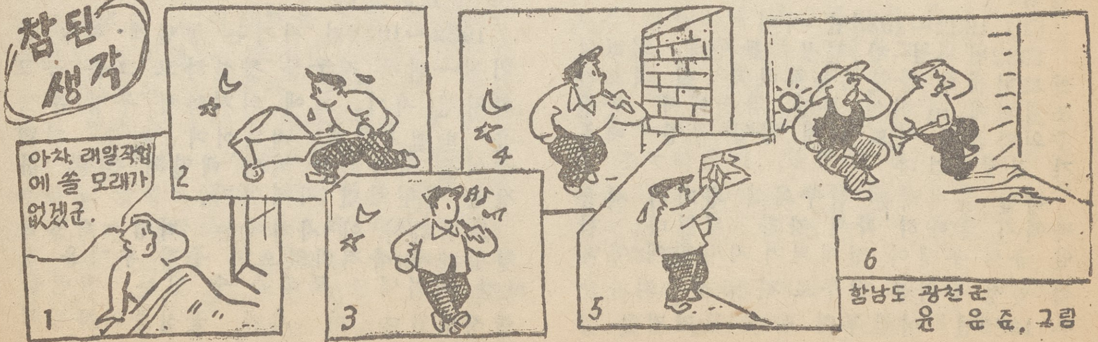
미장의 질은 두말 할 것도 없고 400 %까지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였다. 모두다 환성을 올라며 기뻐하였다.

그들은 새 도구를 《수평 미장기》라 이름 짛었다.

모든 동무들은 신바람이 나게 '일'손을 다우쳤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당이 부르는 20 만세대 주택 고지 점령의 최후 돌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겠다는 굳은 결의로 충만되여 있었다.

본사 기자 하 만춘



함남도 광천군
윤 윤즙. 그림



항일 무장 투쟁의 발전 단계 (1)

편집부는 독자들의 혁명 전통 학습을 방조할 목적으로 항일 무장 투쟁의 발전 단계와 매 단계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아래에 게재한다

최 철

항일 무장 투쟁의 발전 단계는 크게 다음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932~1935년 시기

(동만의 어느 정도 고정된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 의거하여 투쟁하던 시기)

둘째 1936~1940년 시기

(장백 근거지를 중심으로 투쟁하던 시기)

세째 1941~1945년 시기

(소 부대 유격 활동 시기)

항일 무장 투쟁의 매 발전 단계의 주요 내용과 전술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 1932~1935년 시기

1932년 4월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안도현에서 항일 유격대의 첫 대오가 조직된데 뒤'이어 동만 각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하에 항일 무장 대오가 결성되였다.

항일 유격대는 원쑤와의 판가리 싸움속에서 급속히 확대 강화 되였다. 항일 유격 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함에 따라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1932년 여름부터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였다.

유격 근거지 창설 문제는 항일 무장 투쟁 발전의 필연적 요구로서 제기되였다. 즉 무장 투쟁이 혁명 운동의 주되는 형태로 전개되는 조건에서 또 그것이 적 후방에서 전개되는 사정과 관련하여 아직 청소한 유격대가 자체 력량을 보전 강화하며 군사적으로 적에게 보다 큰 타격을 주기 위하여서는 유격대의 공고한 후방기지가 요구되였다. 근거지는 유격 전쟁의 지탱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혁명 력량을 육성하여 조선 혁명의 전반적 행정을 지도하는 근거지로서 필요하였다.

1932~1935년 시기는 동만에 혁명 근거지—해방 지구를 창설하고 그를 공고화하던 시기, 그에 의거하여 무장 투쟁을 발전시키던 시기이며 각종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혁명 대렬의 통일 단결을 실현하던 시기이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혁명 력량을 일정하게 축적하였으며 무장 투쟁을 광범한 지역에로 확대할 수 있는 지반을 축성하였다. 이 시기 공산주의자들의

투쟁 전술은 우선 어느 정도 고정된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를 창설하고 그를 강화하는 사업이였다.

공산주의자들은 김 일성 동지의 령도하에 무장력에 의거하여 근거지들을 창설하였으며(별도 참고)근거지 내에서 낡은 사회—경제 관계들을 타파하였다. 그들은 인민들을 령도하여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 사회—경제 변혁들을 실시하였으며 인민들의 생산 활동을 조직 지도하였다.

이러한 투쟁 형태들에 상응하게 중요한 조직들로서는 근거지내에 혁명 정권, 혁명 위원회, 농민 위원회 등이 창설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은 이를 통하여 대중들과 접촉하고 대중들을 령도하였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근거지내에서 공개적으로 사업 하면서 공청 조직들과 각종 대중단체(농민 협회, 반제 동맹, 부녀회, 아동단 등)와 학교등을 통하여 대중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였으며 간부들을 양성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근거지내 사업과 적 통치 지역내 인민들 속에서의 사업을 결합시켰으며 무장 투쟁을 통하여 적 통치 지역내에 혁명적 영향을 강화하면서 공작원들을 파견하였다. 이 시기 적 통치 지역내 공작은 주로 산업 로동자들과 농촌의 빈농, 고농들 속에서의 사업에 집중되였으며 그의 주요 조직 형태는 혁명적 로조와 농조였다.

이 단계에서의 전투 행동의 주요 특징은 동만의 고정된 근거지에 의거하여 투쟁하면서 그 영향력을 점차 강화하여 나가는 것이였다. 초시기(1932~1933년 상반기)에는 근거지에 의거하여 주로 무기 탈취와 소규모 전투(습격 및 근거지 방어)들을 진행함으로써 자기의 무장력을 강화하였다. 동녕현성 진공 전투로부터 시작되는 다음의 시기(1933년 하반기~1934년 가을)에는 자체의 력량이 어느 정도 강화되고 반일 부대들과의 공동 작전이 실현된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근거지를 떠나 적 성시에 대한 대규모 공격 전투들을 진행하고는 근거지에 돌아오는 작전들을 진행하였다. 례하면 김 일성 동지의 지휘하에 유격대가 중국인 반일 부대와 처음으로 련합하여 진행한 1933년 9월의 동녕현성 전투, 1934년의 라자구 전투를 비롯하여 대전자 전투, 타프차허 전투, 8도구 전투 등이다.

한편 적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근거지 방어 전투들도 비교적 큰 규모에서 진행되였다.(1933년 말~1934년 초)항일 유격대의 자체 력량의 강화 발전과 적들의 공격이 대규모적으로 감행되는 조건에서 근거지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유격전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항일 유격대를 통일적인 지휘에 기초한 단일한 군사 조직 체계로 단합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였다. 김 일성 동지와 그 전우들은 조성된 주객관적 정세를 분석하고 1934년 3월에 항일 유격대를 유일한 군사 지휘 체계에 통합하여 인민 혁명군을 조직하였다. 적의 공격으로부터의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의 방어는 이 시기의 중요한 투쟁 전술이였다. 당시 근거지의 방어 전술은 적들의 침해로부터 근거지내 혁명의 전취물을 보호하며 유격 전술을 련마하며 유격대원들과 광범한 인민들을 승리의 신심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비타협적인 혁명 정신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그리하여 근거지내의 모든 생활을 이에 적응하게 조직 하였으며 인민들로써 근거지 경비 조직과 방어 조직을 이루고 항일 유격대와 함께 반일 자위대, 돌격대, 소년 선봉대 등 인민들의 반(半)무장 대오들을 조직하였다. 근거지 방어 전투들은 적들의 공격이 비교적 약하였던 초 시기에는 부분적인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진행되였다.

그러나 동만 혁명 근거지의 마지막 시기(특히 1934년 말~1935년)에는 적

의 공세가 이 곳으로 집중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유격대와 근거지 내의 모든 력량을 혁명 근거지의 방어에로 집중하였다. 근거지의 전 지역에 걸치는 큰 규모의 방어 전투들을 진행하였으며 한편 혁명 력량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근거지들을 창설하고 이동하는 사업들을 조직하였다.

근거지 내 인민들과 청소년들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영웅적으로 극복하고 필승의 신념으로 원쑤와 싸웠으며 유격대를 도와 끝까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였다.

이 시기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반일 부대들과의 통일 전선을 실현하는 사업에 중요한 주의를 돌리였다.

중국인 반일 부대란 일제의 만주 강점 후 장 학량을 비롯한 동북 군벌 군대 중 반일 항전을 계속한 부대로서(계급적으로는 민족주의자들이 지도하는 군대였다.) 근 30만의 력량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일제는 이 반일 부대와 항일 유격대의 련합을 극도로 위구하였으며 그의 호상 간의 리간을 조성하기에 광분하였다. 여기에 종파 분자, 좌경 기회주의 분자들도 한몫 끼웠다. 그리하여 한 때 항일 유격대와 반일 부대와의 관계는 험악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자신이 몸소 이 난관을 타개하여 반일 부대를 혁명의 편에 끌어 들였으며 반일 부대와 공산주의 세력을 리간 대립시키려는 일제의 흉계를 분쇄함과 함께 《좌》경 기회주의를 극복해 나갔다. 공산주의자들은 별동대의 조직, 림시적인 협약과 공동적인 전투 행동의 실행(동녕현성 전투, 라자구 전투 등) 공작원의 파견 등의 형식으로 반일 부대들과의 통일 전선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의 이 단계에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요한 사업으로 제기한 것은 혁명 대렬내에서 종파주의, 《좌》경 기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혁명 대렬의 통일 단결을 실현하는 문제였다.

혁명 대렬에 잠입한 종파 분자들과 민족 배타주의자들의 해독 행위는 반민생단 투쟁을 계기로 혁명 발전을 엄중하게 저해하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혁명 정세는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었다. 즉 적들이 동만 혁명 근거지에 정예 무력을 집중하면서 근거지 봉쇄 정책, (집단 부락 설치 등)을 본격화하고 있었으며 근거지 내 인민들이 식량난으로 극히 곤난한 형편에 빠졌었다. 여기에다가 반민생단 투쟁에서의 《좌》경적 오유로 혁명 대렬이 분렬될 위험이 조성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정확한 투쟁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혁명을 위기에서 구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복잡하게 엉키여진 제 난관들 중에서 무엇보다 먼저 대렬 내의《좌》경 기회주의를 극복함으로써 혁명의 모든 난관을 타개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왜냐하면 이것을 극복하는 문제는 전체 혁명 투쟁의 운명을 좌우하는 원칙적 문제였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 몸소 이 투쟁의 앞에 서서 《좌》경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결정적으로 분쇄하였다.

그리하여 혁명 대렬의 통일 단결을 실현하였으며 혁명 투쟁의 모든 분야에서 맑스-레닌주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될 수 있게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또한 조성된 새로운 정세 하에서 동만의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를 해산하고 항일 유격대를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시킬 데 대한 새로운 투쟁 대책을 제시하였다.(1935년 봄 요영구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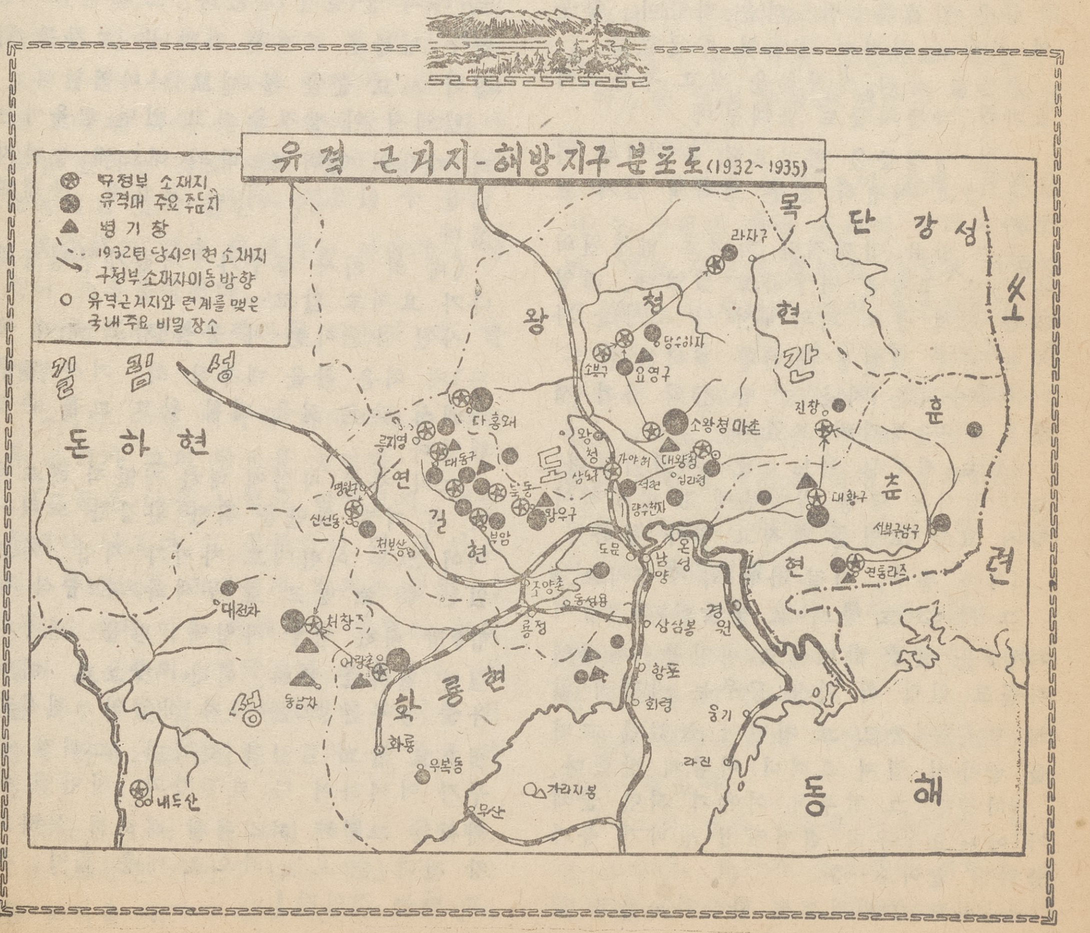
항일 무장 투쟁의 초 시기에 근거지-해방 지구를 창설한 것은 정당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광대한 만주를 통치하기 위하여 괴뢰군을 상당한 수로 준비하였으며 자기의 군사력을 동만의 혁명 근거지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근거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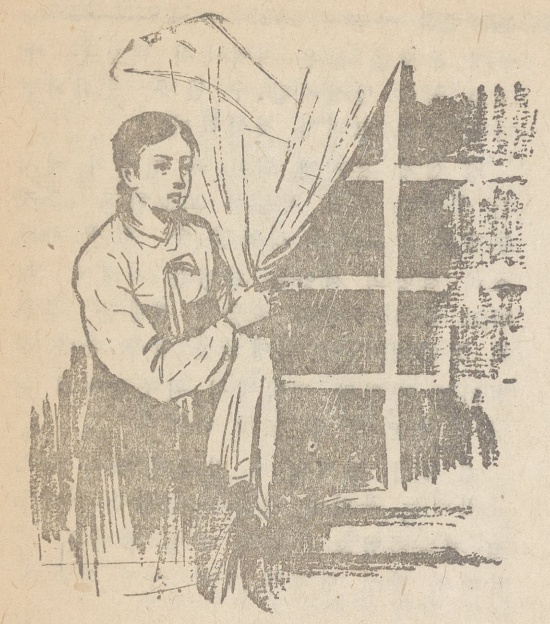
대한 봉쇄를 강화하게된 새로운 정세 하에서 근거지—해방 지구를 계속 고수하는 것은 혁명 력량이 각개 격파당할 위험성이 있었으며 혁명의 발전을 구속하는 것으로 되였다. 당시 항일 유격대는 전적으로 근거지 방어에만 매달리게 됨으로서 전투에서 피동에 서게 되였다.

이러한 정세는 새로운 투쟁 전술을 요구하였다. 또한 근거지를 해산하고 항일 유격대를 광활한 지역에로 진출시킬 방침은 당시 조성된 불리한 정세만 고려된 것이 아니였다. 이 방침을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 즉 수년간 동만 근거지에 의거하여 항일 유격대와 혁명 력량이 급속히 장성 강화됨으로써 무장 투쟁을 넓은 지역에서 새로운 규모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게 준비되였다는 것도 고려한 것이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한 새 전술의 제시는 축적한 혁명 력량을 보호하고 무장 투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혁명의 씨앗을 광범한 지대에 뿌리고 유격 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꾸리며 인민 혁명군을 일층 단련 강화하고 광활한 지역에서 원쑤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게 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새 방침에 따라 항일 유격대는 북만을 비롯한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하였으며 항일 무장 투쟁은 두번째의 발전 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다.





원 칙 성

—한 민청원의 민청 생활 총화에서—

밤은 깊었다. 서느러운 바람이 창문의 카텐을 가벼이 흔들어 주군한다.

포장한 유리 상자들을 싣고 부산스레 오가던 자동차들도 뜸해졌다.

바깥 정경들을 바라보던 옥순이는 카텐을 잡고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하여도 민청원의 의무(ㅅ)조항을 연구하고 있었다. 래일 그는 민청 분조 회의에서 이 조항을 가지고 민청 생활을 총화할 것이였다.

…옥순이는 지난 몇 달 간의 자기 생활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6월도 저무는 어느 날 저녁이였다. 그가 일하는 공장 기술부에 한 민청원이 창의 고안 도면을 가지고 찾아 왔다.

《기사 동무, 이걸 한번 봐 주십시요.》

그 때 《3 호 땅크 로 무색화》와 《습식 배합》을 연구 하느라고 머리를 책상에 파묻고 있던 최 기사 동무는 시답지 않게 얼굴을 들고 그 청년이 들었던 도면을 받아서 펼쳐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그 전부터 이야기 되던 문제가 아니요? 우리 실정에선 설비가 불가능하단 말이요…》

《설비도 구체적으로 타산하느라고 했는데요?》 그 청년의 말이다.

《글쎄…? 공학적 계산도 돼야겠는데 하여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최 기사 동무는 그의 설계 도면을 서류 궤짝 속에 집어 넣고 자기의 도면에로 다시 눈'길을 돌렸다. 그러자 그 청년은 언짢은 표정을 하더니 모자를 뒤집어 쓰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순옥이는 최 기사의 전혀 뜻 밖의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저도 모르게 불쾌해졌다.

(왜 최 기사 동무가 저럴가?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사실 옥순이는 이 공장(남포 유리 공장)에 처음 왔을 때부터 최 기사 동무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 왔고 그를 존경했었다.

그의 자기 사업에 대한 정열적 태도이며 새 기술 창안을 위한 완강한 노력… 지어 그는 이번에도 자기가 직접 하고 있는 《3 호 땅크 로 무색화》와《습식 배합》에 대한 연구 사업에 밤을 새우다 싶이 일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하여 옥순 동무는 그를 자기 사업의 진실한 벗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동무가 어찌하여 한 로동자의 창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허심하게 대하지 못하고 강 건너 불 보는 격으로 대충 훑어 보고 마는 것인가!

그렇다. 이것은 분명 낡은 생각…관료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옥순이는 참을 수가 없었다.

《옳지 않아요.》

그의 입에서는 비난의 말이 튕겨 나오려 했으나 꿀꺽 삼켜버렸다. 아직도 이런 일에서는 자기의 원칙적 태도를 견지할 만한 용기가 부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차츰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무들의 결함이 점점 더 자주 눈에 띄였다. 그럴수록 어쩐지 가슴은 답답하였다.

《왜 로동자들이 제기한 창안의 거개가 서류함에서 먼지 껴야 하는가? 금년 상반년 간만 해도 170 여 건 이상 되는 로동자들의 창의 고안 중에서 실속 있게 도입된 것이 과연 얼마람? 그나마 도입 했다는 것도 돌봐 주지 않아서 망그러지고 있지 않는가?》

옥순이의 가슴 속에서는 여러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어떻게 할가? 직바루 이야기 해 줄가?)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한켠으로는 다른 목 소리가 그의 량심을 눌렀다.

(그들은 나를 노엽게 여기겠지. 기술 문제야 나보다 그 동무들이 더 잘 아는데…? 좋도록 지내는게 랑패는 없어…)

옥순이의 마음 속에서는 이렇게 원칙성과 보신주의, 적극성과 소심성이 서로 다투고 있었다. 원칙성이 머리를 쳐들려 하면 소심성이 내려 누루군 하였다.

옥순이의 나날은 고민 속에서 흘렀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창안에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 창안이 성공되면 상금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들이 상금만을 바라는 하찮은 사람들일가? 몇 사람들 때문에 숫한 예비가 그냥 파묻혀 버린다면…》

옥순이는 든든히 마음 먹고 그들에게 꼭 이야기 하리라 생각했으나 정작 만나면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청년들의 기술 창안을 자기가 직접 도와 주자고 달라 붙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좀체로 풀리지 않았다. 이때처럼 그가 자기의 기술 부족을 통절히 느껴 본 적은 없었다.

그리하여 옥순이는 점차 남의 결함엔 아랑곳 없이 보는체 마는체 하게 되였다.

그러나 전진하고 비약하는 생활의 흐름 속에서 옥순이도 전진하고 있었다.

어느날 그의 량심을 깨우쳐 주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가 현장에 나가 보니 한켠 구석에서 두 청년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다. 바로 전번에 창안을 가지고 기술부에 왔던 그 청년과 그의 동무들이였다. 그들은 지금 로의 정상적인 온도를 보장하기 위한《공기 가스의 배기 장치》를 만드느라고 고심 분투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며칠을 악전 고투하고 있었다. 그들의 일'손을 바라보던 그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동무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 그들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생산에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

그는 새삼스럽게 자기의 소심성이 가증스러워졌다.

《…그저 남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자는 소심성, 자기와 동무들의 사이를 아무렇던〈좋게〉만 하고 싫은 소리를 듣지

말자는 보신주의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 부정 앞에서 물러 서는 나약한 자가 다름 아닌 자신이 아닌가…》

그 날부터 옥순이 마음 속에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움텄고 자기를 더 깊이 반성해 보게 되였다.

《그렇다. 최 동무의 결함을 내가 고쳐 주지 않는다면 누가 고쳐 준단 말인가?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과연 동지를 잃어 버리는 것으로 될가?

아니다. 혁명의 귀중한 동지들이기에 그 동무의 잘못을 고쳐 주어야 한다.

오히려 동지들의 잘못을 보고도 비판하지 않고 고쳐 주지 않는 것이 동지를 잃어 버리는게 아닌가…》

그는 민청원의 의무를 다시 학습하였다. 민청원의 의무(人)조항을 연구할수록 그것은 더욱 두드러지게 머리에 떠올랐다.

《민청원은 낡고 부패한 것을 반대하고 새 것에 민감하며 사업상 및 도덕상 결함을 시정하여 주기 위한 동지적 비판을 발전시켜야 한다.》

더우기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연설을 다시 학습하는 과정에서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창조하는 데 용감하라는 수령의 교시는 그의 심장에 크다란 용기를 안겨 주었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품성의 하나는 원칙성이다. 그 어떤 사소한 결함과도 타협을 모르며 원칙 앞에서 물러 설줄 모르는 사람이 되여야 한다.

그것이 없이는 기술에서의 대담한 혁신도, 리기주의와 보수주의와의 투쟁도 할 수 없으며 동지 호상간의 굳은 단결도 생각할 수 없다.

옥순이는 그 이튿날 작업이 끝나자 민청 생활 총화 회의 장소로 나는듯 달려 갔다. 이날 그는 비록 떨리는 목소리로나마 용감하게 동무들의 결함을 비판하였고 자기의 지난 날의 무원칙한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 ×

그 후 이 집단의 생활 분위기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동무들마다 서로 돕고 이끌며 활기찬 집단으로 자랐으며 민청원들은 저마다 원칙적이고 두터운 동지애로 굳게 단합되였다.

최 기사와 다른 동무들의 사업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십차에 걸친 실패를 거듭하면서 《무색 유리》 신제품을 생산하여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주었다. 일부 동무들 가운데서 표현되고 있던 관료주의적인 태도와 자기 창안만 고집하던 버릇들이 시정되고 성심 성의 로동자들의 창의를 힘껏 도와 주었다.



옥순이는 용감하고 의지가 굳건한 민청원으로 되였다.

일상 생활에서나 민청 회의에서 남의 잘못을 가슴 아파하고 타이르는 옥순 동무의 얼굴에는 언제나 밝고 구김 없는 기색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본사 기자 류 승 환

지상 강좌

계급과 독재

김 병 수

노예 소유자들은 노예를, 봉건 령주들은 농노를 그리고 근대의 자본가들은 로동 계급을—지금까지 존재한 계급 사회에서는 이렇듯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 착취하였다.

—그러면 무엇으로써 한 줌도 못되는 극소수의 착취 계급들이 절대 다수의 피착취 계급을 마음 대로 억압 착취할 수있었겠는가?—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제기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하여 그들은 국가라는 권력 기구를 장악하였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감옥, 경찰, 군대 등등과 같은 권력 기구를 통하여 피착취 대중에게 독재를 실시한다.

착취 계급들은 이런 국가 권력의 힘에 의하여서만 착취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피착취 계급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착취와 억압이 지배하는 국가는 항상 소수 착취 계급을 위한 국가이며 대다수 인민 대중에게는 아무러한 권리도, 자유도, 민주주의도 없는 것이다.

로동 계급이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부르죠아 정권을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트의 정치적 지배를 수립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이 부르죠아 정권을 타도한 다음에 세우는 이 정권이 바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정권인 것이다.

오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모든 나라들에서 로동 계급이 장악한 정권은 각이한 형태 즉 쏘베트나 인민 민주주의 형태를 띠였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 즉 그것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인 것이다.

우리의 인민 정권도 역시 프로레타리아 독재 정권이다.

그러면 부르죠아 독재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근본적 차이점은 무엇인가?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부르죠아 독재도 포함한 종래의 모든 독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종래의 독재는 소수 착취 계급이 다수 피착취 계급에 가해지는 독재였다면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다수 피착취 계급이 소수 착취자에게 가하는 독재이다.

여기에 바로 부르죠아 독재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새 형의 국가—인류 력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피착취, 피압박 계급의 국가이다.

그러면 왜 로동 계급에게 이러한 독재가 필요한가?

한 마디로 로동 계급이 프로레타리아 독재 없이는 자본주의를 청산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으며 전복된 부르죠아지의 반항을 진압하고 혁명을 끝까지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에까지 이끌어 갈 수 없다는 데 있다.

정권을 장악한 프로레타리아트는 간고하고 치렬한 계급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우선 전복된 착취 계급들이 아직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래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야합하여 로동 계급에 대한 필사적이며 발악적인 반항을 감행해 나선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혁명 과정만을 놓고 보더라도 잘 알수 있다.

북반부에서 로동 계급의 혁명 위업이 실현됨에 따라 전복된 착취 계급—지주, 자본가, 친미파,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대다수는 월남 도주하였으며 미제의 사촉 하에 남반부의 반혁명 세력과 함께 북반부의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할 음모를 꾸미여 왔다. 북반부에 남아 있는 자들 중에도 극소수의 악질 분자들은 우리 제도를 반대하여 악랄한 책동을 감행해 나섰다. 이와 같은 놈들의 발악적인 반항은 일시적 후퇴의 어려운 시기에 집중적으로 감행되였다.

그러므로 자본가들의 정권을 탈취한 로동 계급은 독재의 무기로서 옛제도를 계속 꿈꾸고 있는 이러한 착취자들의 반항을 진압하며 국방을 강화하여 외래 제국주의 침략 책동을 분쇄하고 혁명의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자본가들의 정권을 탈취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의 첫 출발에 불과하다. 정권을 장악한 로동 계급은 낡은 착취 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수립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전체 근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의거해서만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면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로동 계급이 독재를 실현하는 기구에는 당 및 정권 기관, 직맹, 민청, 녀맹 기타 조직체들이 있다. 이러한 조직체들의 전일체를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라고 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에서 당은 향도적 력량이다.

혁명의 참모부이며 정치적 수령인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가 없이는 로동 계급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 당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지도를 이러한 대중적 조직체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조직체들은 당이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는 도구이다. 당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를 구성하는 제 기관을 통하여 근로 대중을 국가 관리에 참가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한다.

당은 이 조직체들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향도하는 지도적 력량이다. 조선 인민의 지도적, 향도적 력량인 조선 로동당은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정권 기관, 직맹, 민청, 녀맹 기타 근로 단체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투쟁 과업을 제시해 준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해서 이 대중적 조직체들은 근로자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한다.

그러면 당의 령도 하에 실현되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본 측면들은 어떤 것들인가?

우선 전복된 착취 계급들에 대한 진압과 외래 제국주의 침략 세력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 하는 혁명적인 폭력 기구라는 데 있다.

로동 계급의 국가는 오직 혁명적 무장력과 폭력 기구을 가짐으로써만 전복된 착취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철저히 수호할 수 있다.

지난 시기 우리 인민이 미제와 그 주구들이 도발한 3 년 간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나 그리고 전복된 착취 계급들의 반항들을 걸음마다 승리적으로 분쇄한 것은 바로 강력한 독재의 무기를 자기 손에 튼튼히 쥐고 진압의 기능을 옳게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쑤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이것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이와 함께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국내의 반혁명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함께 공동의 원쑤인 세계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각국 프로레타리아트와의 련계를 강화하여 그들의 해방 투쟁을 지지하며 원조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폭력적인 독재의 측면과 함께 민주주의적 측면을 가진다. 즉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원쑤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압이며 철저한 독재인 반면에 절대 다수 인민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로동자, 농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지주, 자본가들의 리익을 거부합니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지주, 자본가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 인민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김 일성 선집 5 권 441~442 페지)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하에 인민 정권 하에서 처음으로 참된 민주주의를 보장 받게 되였다. 우리 인민들은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생활에 직접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인민 정권은 혁명의 원쑤들—지주, 자본가, 친미 친일분자, 반혁명 분자등에게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며 절대 다수의 인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다. 반면에 소위《민주주의》와《자유》를 표방하는 미국이나 남조선 군사 파쑈 독재 정권은 지주, 자본가의 정권으로써 거기에서는 착취 계급들에게만 자유스러운 것이요, 절대 다수 인민들에게는 생지옥인 것이다. 오늘 남조선 사태가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거기에는 오직 인민들을 마음 대로 억압 착취하며 닥치는 대로 탄압 학살하는《자유》만이 있을 뿐이며 근로자들과 전체 인민들에게는 그 어떤 사소한 자유와 민주주의도 없으며 또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투쟁을 세차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로동 계급이 전체 근로 대중을 지도하는 무기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로동 계급은 농민을 비롯한 전체 피착취 대중을 부르조아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떼여 내여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리용하여 근로 대중을 지도한다. 근로 대중에 대한 국가적 지도에서 주되는 것은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령도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피착취 근로 대중들, 그중에서도 농민으로부터의 지지 없이는 정권을 유지 공고화 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전체 피착취 근로 대중이 결속될 때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불패의 것으로 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사회 경제 및 문화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도구로 된다.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전복하고 억압과 착취의 근원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은 인류 력사에서 일찌기 그 전례가 없는 가장 위대한 창조적 사업이다. 이것은 그 어떠한 착취자들의 국가도 해본 일이 없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의 본질적 과업이다.

로동 계급은 사회의 생산력을 발전시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온갖 낡은 요소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하며 높은 로동 조직을 실현하고 자본주의에 비할 수 없는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창조해야 한다.

우리 당은 독재의 무기를 튼튼히 틀어 쥐고 온갖 계급적 원쑤들의 반항을 극복하면서 전체 인민을 조직 동원하여 단 시일 내에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는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위대한 천리마 시대, 전면적인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의 시대를 열어 놓았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측면들은 이상과 같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이 측면들은 호상 밀접히 결합되여 있으며 그 중 어느 하나가 결여되여도 사회주의는 건설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 투쟁과 함께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문제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중심 문제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계급 투쟁의 승인을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승인에까지 확장시키는 사람만이 맑스주의자인 것이다… 이 시금석으로써 맑스주의에 대한 진정한 리해와 승인을 시험하여야 한다.》(레닌 선집 25권 521 폐지)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의 온갖 원쑤들은 맑스-레닌주의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세하려고 날뛰고 있다. 제국주의의 앞잡이 수정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한다. 이 자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민주주의를 대립시키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는《민주주의를 말살》한다느니《자유》가 없다느니 하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고 파렴치하게도 부르죠아《민주주의》를 찬양하여 나선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떠한 독재이건 민주주의를 폐지 하지 않는다. 문제는 누구를 반대하며 누구에 대하여 독재가 실시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하여 민주주의가 실시되는가 하는데 있다.

로동 계급은 결코 옛제도를 망상하고 발악하는 전복된 착취자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줄 수 없다. 오직 진압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수정주의자들이 누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는가?하는 것은 명백하다. 이 원쑤들은 결국 부르죠아지에게 로동 계급의 투항을 설교하는 것이다. 또한 이 자들은 국가의 조락을 운운하면서 프로레타리야트에게 독재가 필요 없다고 한다.

물론 맑스-레닌주의 고전가들은 국가 조락에 대한 사상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로동 계급이 국가 정권을 장악하기는 하였으나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포위가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 국가는 조락될 수 없다.

지구 상에는 아직도 제국주의 침략 세력이 존재하며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을 《압살》하려는 그들의 준동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로동 계급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를 계속 고수할 뿐만 아니라 그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국토가 남북으로 분렬되고 남반부에 세계 반동의 괴수 미제와 그 주구들이 둥지를 틀고 있고 원쑤들이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파괴할 음모를 계속 꿈꾸고 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더욱 철저히 고수하며 우리의 인민 정권을 강화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의병장 최익현

김 철 화

북두성 저쪽 조국을 바라보니
백수로 잡힌 몸 통분도 하여라!

만번 죽은들 적의 부귀 탐할소냐
오로지 일생을 정의 위해 싸우노라!

이 시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침략을 반대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 없이 바친 의병장 최 익현이 왜놈들에게 체포되여 놈들의 대마도 감옥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면서 자기의 굽힘 없는 애국 지조를 노래한 시이다.

그는 실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반일 의병 투쟁에서 빛나는 한 자리를 차지한 애국적인 의병장의 한 사람이였다.

최 익현 (찬겸 호는 면암)은 1833년 12월 5일에 경기도 포천 땅에서 최 대라는 한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어려서 부터 남달리 성질이 강직하였다. 게다가 골격이 비범하고 눈에 정기가 별처럼 반짝여서 기남(奇男—기이한 사나이라는뜻)이라는 별명까지 들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매우 총명한 소년이였다. 그래서 여섯살부터 글을 배웠으나 한번 배운 것은 거의나 잊어 먹는 일이 없었다 한다.

원래 그의 집은 몹시도 가난하였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고향을 등지고 아버지를 따라 충청도 금수산 속으로 혹은 양근 이곡이란 곳으로 이사하며 떠돌아 다녔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는 어려서부터 세상 물정에 대한 견문도 더 넓어졌고 하층 인민들의 눈물 겨운 생활도 몸소 체험하게 되였다.

14세 때부터 그는 당대 이름이 높았던 학자 리 항로의 제자로서 공부하게 되였다. 리 항로는 1866년 9월 불란서 침략자들이 강화도를 침범하였을 때 무능력한 통치 계급이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자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자기의 제자 량 헌수로 하여금 의용병들을 거느리고 가게하여 력사적인 승리를 쟁취케한 애국적 인물이였다. 이와 같은 선생의 교육을 받게된 것은 최 익현의 애국주의 사상 발전에서 하나의 커다란 계기로 되였다. 뿐만 아니라 청년 시절에 그는 류 린석을 비롯한 많은 애국적인 청년들과 사귀므로서 그의 가슴에는 조국을 사랑하고 왜적을 미워하는 정신이 남달리 강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가 한창 청년 시절이던 1855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선 후 전라도 지방관으로 있은 때의 일이였다. 당시 전라도 감사로 있던 자는 백성들을 못살게 굴기로 이름이난 자였다.

어느날 익현은 그 놈이 빗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무고한 백성들을 붙잡아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그는 너무도 분개한 나머지 감사에게 말했다.

《자고로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인데 백성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무슨 정치를 운운하겠는가? 이런 폭행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감사 놈은 《네 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노발대발하였다. 그러나 최 익현은 굴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력설하였다.

그러나 끝내 그 놈이 지위와 권세를 내두르며 자기의 정당한 말을 듣지 않자 《오늘 무릇 관리란 백성들의 피를 빨아 먹는 벌레인즉 내

이런 무리 속에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고 개탄하고 단연 관직을 버리고 길을 떠나니 이말을 들은 고을 인민들은 한결 같이 떨쳐나 그의 앞길을 가로 막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한다.

그는 왜적과 결탁하여 나라를 팔아 먹으려는 무리들을 극도로 증오하였으며 그로하여 항상 통치 계급들의 심한 박해를 받았다.

1873년 그는 당시 왜적에게 나라를 송두리채 팔아 먹고 인민을 못살게 군 통치 계급들을 비판한 탓으로하여 제주도로 정배 가게 되였으며 1876년에는 침략적인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였다하여 왜놈들의 사촉하에 흑산도라는 섬 속에서 감금 생활을 당했다.

그러나 그 어떤 불운과 박해도 그의 고매한 정신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당시 일제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구라파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데 대하여 분개 하면서 놈들의 강도적인 침략적 본질을 폭로하였다.

그는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본질의 공통성에 대하여 《왜놈이 곧 서양놈이고 서양놈이 곧왜놈이다.(倭則洋洋則倭)》라고 정당하게 규정하였다.

그 후 1905년 망국적인 《을사 5 조약》이 체결되자 가슴을 치면서 국왕에게 글을 보내여 리 완용을 비롯한 5적들의 머리를 당장 버일데 대하여 강경히 주장 해 나섰다. 동시에 그는 8도 인민들에게 모두다 떨쳐 일어나 나라를 구할 데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은 극도로 당황하였다. 그리하여 그를 다시 체포하여 감금하였다. 그러나 최 익현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일본 군경 놈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왜놈과 서양 놈들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인가? 그러므로 나는 나라를 위하여 네놈들과 서양 놈들을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마음을 바로 잡으라! 그러면 높은 벼슬이 차례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있을 것이다.》

놈들은 최 익현을 이렇게 높은 관직과 부귀를 준다고 회유도 해보고 체형을 가하여 위협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놈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일본 침략자들의 죄행에 대하여 추상 같은 목소리로 폭로하였다.

《바로 죄인은 칼을 들고 남의 집 재물을 탐내여 뛰여든 네 놈들인즉 어찌 죄인이 무죄한 사람을 괴롭히는가! 그것이 강도의 론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너무도 사리가 명백하고 정연한 론리와 그의 높은 지조에 왜놈들도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리하여 몇 사흘이 지난 후 놈들은 끝내나 리치에 몰려 그를 석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옥에서 나온 후 그는 기울어 드는 나라의 운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총을 들고 놈들과 싸우는 길 밖에 없음을 더욱 통절히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74 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순창 지방을 중심으로 의병 부대를 조직하였다. 백발이 성성한 그가 진두에 서서 인민들에게 총을 들고 나라를 보위할 것을 호소해 나서자 사처에서 인민들과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 들기 시작하였다. 한편 그는 왜놈 정부에 성토문을 보내여 놈들의 침략적 죄상을 열여섯 가지로 나누어 문책하였다.

그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의병 부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높아졌으며 일본 침략자들과 친일 매국 도당들은 커다란 공포에 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 일본 침략자들은 전주, 남원, 순창에 있는 대부대를 동원하여 최 익현 의병 부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의병 부대는 멸적의 기세 높이 왜놈들을 쳐부셨다. 그의 진두에는 언제나 백발이 성성한 최 익현 장군이 서 있었다.

특히 순창 전투는 격렬하였다. 싸움은 온종일 계속되였다. 전장에는 남의 나라를 쳐먹겠다고 달려든 왜군의 불손한 시체가 한벌 깔렸다. 그러나 어찌하랴! 400 여 명의 소 부대로는 치고 또 쳐도 사태처럼 밀려 드는 왜군을 감당해 낼 수 없었다. 정황은 매우 위급하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최 익현은 전장의 높은 곳에 올라서 소리 질렀다.

《모두다 후'날을 위해서 나머지 군대들은 림시로 후퇴하라! 그러나 우리는 기어코 왜놈들을 쳐부시고 승리할 것이다. 여기에는 내가 남아서 후위를 담당할 것이다.》

병자들은 그의 팔소매를 부여 잡고 함께 후퇴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장군은 자기의 한 몸으로 부대의 위험을 막을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부대의 후위로 남아서 원쑤들과 싸웠다. 그는 총탄이 떨어질 때까지 놈들과 항전하다가 불의에 옆으로 달려 드는 놈에게 체포 당하고 말았다.

그해 7월…최 익현은 천추의 원한을 품은 채 적들의 령토인 대마도에 끌려가 또다시 감옥에 감금되였다. 감옥에서 74 세의 고령인 그는 놈들의 모진 고문과 육체적인 쇠약으로 병에 걸렸다. 그는 운신조차 잘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한 병 중에서도 왜놈들이 주는 음식과 약품들을 하나도 받지 않고 거절함으로써 불타는 항거의 정신을 표명하였다.

그는 자기의 비장한 최후를 마치면서 당시의 국왕에게 다음과 같은 글월을 보내였다.

《74 세의 몸으로 죽은들 무슨 한이 있으리요만은 다만 국내 역적들을 처단하지 못하고 국외 원쑤들을 섬멸시키지 못하고. 자주적인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으니 이 몸이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최 익현은 불굴의 기개와 애국정신을 가지고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싸우다가 애석하게도 왜놈들의 감옥에서 자기 생애를 끝마치였다.





기술 혁신의 길에서

강선 제강소 소형 직장의 넓은 작업 현장에서는 련일 120만 톤 강철 고지 점령을 위한 긴장된 로력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쉬임 없이 강철 덩어리를 물어 나르는 기중기며, 흐름식이 되여 련달아 쏟아져 나오는 환형강들, 큼직한 강재를 떡처럼 비져내여 레루를 만드는 로동자들, 모두가 빈틈없이 맞물려 바삐 돌아간다. 그런데 기술원 김 상진 동무와 박 정순 동무들 만은 한켠 구석에 못박힌 듯 서서 산형강(단면이 ㄱ형으로 생긴 강재) 생산 공정을 뚫어지게 바라 보고 있다.

그들은 지금 산형강 생산 공정을 자동화 할 데 대한 문제를 두고 여러가지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이 사업에 착수한지는 벌써 1 년이 지났다. 그들은 연구 과정에서 벌써 두 차례나 되는 실패를 겪었고 방금 전에만 하여도 세번째의 실패를 당한 참이였다.

《그 놈의 강재가 왜 뜻대로 굽어들지 않는담.》 하고 상진 동무는 주먹으로 제 가슴을 탕 치면서 풀썩하고 의자에 주저 앉았다. 정순 동무 역시 고개를 떨구고 그 곁에 서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찌 그러지 않겠는가! 그들이 1 년 동안이나 기우린 정력과 노력은 얼마이며 난관인들 오죽하였던 것인가!

그들의 가슴은 불이 이는 듯 하였다. 그러나 쉬임없이 들려 오는 기계와 기대들의 부름소리를 들으면 가슴에서는 어느새 힘이 용솟는 것이였다.

(그렇지! 산 형강 생산 공정의 자동화—이것은 여섯 개 고지 점령에서 그 얼마나 거대한 역할을 놀게 될 것인가! 1 년 동안에 1만 톤의 강재를 더 증산하게 하고도 로력은 2천여 공수나 절약하게 하니… <1, 211 고지의 용사>들인 우리가 이런 일에서 과연 물러 설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좀체로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이때 어느 새 그들의 곁에 와서 있던 직장 민청 위원장이 량손을 두 동무의 어깨 우에 얹으며 쾌활하게 말했다.

《뭐 또 실패 했다지! 그렇다고 락심할 필요야 없지, 우리는 한번 더 로동자들과 민청원들의 집체적 지혜를 동원해보자구, 그저 모든 일은 로동자들에게 의거하는 것이 제일이란 말이야…》

그후 직장 민청에서는 당 단체의 지도 밑에 산형강 생산 공정의 자동화가 실패된 기술적 원인을 구명하기 위한 광범한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회의에서는 가치있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였다. 기능공 선 우락 동무는 전회기의 길이가 짧아야 하겠다는 것을 산 경험으로 증명해냈다. 다른 로동자 동무들은 출구 유지관이 강재의 온도나 치수가 계산상으로 리상적인 상태에서만 움직이게 되여 있는 것이 결함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기하였다. 그것은 실지 작업에서는 강재의 치수와 온도가 약간씩 차이나는 것이 레사임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여야 하겠다는 것이였다. 그런가하면 이번엔 정동우 동무가 가장 힘들고 아직 심중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로루 공정 압축량 분배 문제를 훌륭히 해결해 낼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들의 말을 듣는 상진이나 정순의 눈은 더욱 빛났다.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기초하여 청년 기술 혁신 구루빠가 조직되였다. 창안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상진 동무와 정순 동무는 일이 되여 가는 재미에 잠을 설피고도 피곤을 느끼지 않았으며 끼니를 에우고도 배고픈줄 몰랐다.

네번째 실험이 진행 되는 날 직장 안에서는 환성이 높이 올랐다. 산형강 강재가 흐름식이 되여 쏟아져 나온 것이다. 성미 빠른 기술 혁신 구루빠 동무들은 《성공! 성공!》 하고 뛰여 다니며 기뻐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이르다. 쏟아져 나온 제품에 대한 검사원의 결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과연 그것이 성공하였는지?) 검사원의 결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가슴은 조여드는 듯 하였고 한 초가 옹군 하루 맞잡이로 되는 것만 같았다. 드디여 검사원이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70 %가 오작이예요.》

기술 구루빠 성원들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 앉는 듯 하였다.

그들은 련 일주일이나 현장에서 지새면서 결함의 원인을 구명하려 하였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첫번째 실험부터 네번째 실험이 진행되던 전 과정을 하나하나 더듬어 가면서 다시 따져 보았다. 문득 정순 동무의 머리에는 산형강이 마지막 공정에서 맞물릴 때 바르르 떨리던 일이 떠 올랐다.

(혹시 그 진동이 제품의 질을 나쁘게 한 것이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그들은 곧 현장에 달려가 몇몇 경험있는 로동자들과 협의해 보았다. 과연 그것이 그럴듯한 원인으로 되겠다는 합의에 도달되였다. 여기에서 정순 동무는 강재가 떨리지 않게하는 중간 지지 로라를 만들어 붙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 중에는 자동화에 대한 확신성을 못가지고 은근히 반대하는 기미가 보였다. 그들은 말하기를

《완전한 실험을 위해서는 2~3일간 생산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수백 톤의 강재 생산을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괜히 자신 없는 자동화를 가지고 몇번이고 생산에 지장을 가져 올 필요야 있겠는가?》 라고 …그러나 새 것은 언제나 낡은 것을 타승하고 시간을 따라 자기의 길을 전진하는 법이다.



자동화를 몇달 미루자는 소극성도 결국은 일축되고 말았다.



《자동화는 반드시 해야 하오. 우리는 이 길에서 한 걸음도 물러 설 수 없소, 우리는 우리의 월간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거기에서 얻은 날'자로 실험해 볼 작정이요.》

이렇게 로동자들은 들고 나섰다.

드디여 다섯번 째 실험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였다.

단시일내에 해치워야 할 작업이니 만치 일은 힘들었다. 로동자들과 민청원들은 밤을 밝혀가며 일하였다.

정순 동무는 랭각수를 맞으면서 일하는 오랜 로동자인 최 영도 천리마 작업 반장의 옆에 가서 일'감을 빼았으며 말했다.

《반장 동지 몸에 무리가 가겠습니다.》

《허허 이 사람, 자네는 일년 남아 고생하였는데 내라고 며칠을 견디지 못하겠는가? 념려말게.》

《그래도 말입니다.》

《그래도라니? 사람을 놀고 먹는 밥벌레로 만들 셈인가? 썩 물러가게.》

순간 정순 동무는 자기의 코'마루가 찡해지는 것을 어쩌는 수 없었다.

(참말이지 이런 사람들 속에 사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악전 고투의 며칠은 또다시 흘렀다. 그리하여 마침내 실험은 성공되였다. 사람들은 검사원을 둘러싸고 《만세!》를 소리 높이 웨쳤다.

사람들 앞에는 끄리를 물고 쏜'살같이 흐르는 시뻘건 강철이 곱다란 산형강 강재로 되여 계속 쏟아져 나왔다.

《장하이 민청원들!》

청년 기술 혁신 구루빠 성원들의 어깨를 하나하나 두드려 주는 최 영도 작업반장의 얼굴에는 감개 무량한 빛이 넘쳐 흐른다.

이렇게하여 그들은 120만 톤의 강철 고지 점령에서 또 하나의 귀중한 기여를 하였다. 계속 쏟아져 나가는 강재의 흐름을 보는 그들의 얼굴에는 시뻘건 불'빛이 반사되여 이글거리고 있었다. (본사 기자)



조선술의 력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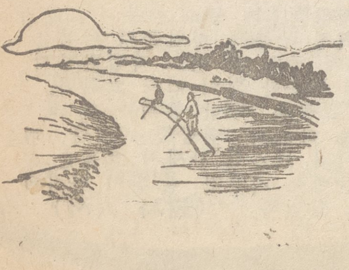
주 열원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 온 력사는 참으로 길다.

원시인들이 쓰던 최초의 배는 통나무였다. 원시인들은 홍수를 비롯한 거대한 자연의 힘과 싸워야 했으며 부단히 맹수들의 습격을 막아야 했다. 그들은 넘어진 나무통들을 물에 띄워 놓고 거기에 매달려서 위험을 모면하군 하였다. 점차 통나무배는 강을 건느는 운수용으로부터 고기를 잡는 일에 리용하게 되면서 그 구조가 더욱 개량되였다. 그리하여 통나무배는 떼'목으로 되고 목선으로 되고 나중에는 철선으로까지 발전되였다.

배의 추진력도 처음에는 사람이 손으로 저었고 다음에 노(櫓)가 사용되고 노가 돛으로 되고 그것이 증기기관, 내연기관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와서는 원자력을 리용하는 선박들을 만드는데까지 이르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우리 나라에서도 재능있고 근면한 우리 인민들은 수산업과 함께 조선술을 그 어느 나라에도 못지 않게 발전시켜 왔다.



우리 나라 원시 사회의 유물들 중에서 낚시, 바늘, 송곳 및 기타 어로 도구들을 많이 찾아 보게 된다.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조선술과 해상 활동에 관한 기록은 3세기 이후 시기의 것들이 남아 있다. 삼국 시대인 이 시기 우리 선조들은 서해나 남해를 건너서 중국과 일본, 기타 나라들과 해상 교류를 빈번히 가졌었다.

거기에 따라 선박 건조 기술도 매우 발전되여 구조선(構造船)을 만드는 높은 수준에까지 도달하고 있었으며 항해술도 지문 및 천문 항법이 도입되고 있었다.

고구려에서는 강력한 수군(水軍) 조직이 있어서 외래 침략을 해상에서 격퇴하고 조국을 수호했으며 백제는 그의 지리적 조건에 의하여 해상 활동이 활발하였고 특히 일본의 선박 운용술과 조선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

538년 신라에서는 선박 행정을 관할하는 선부서(船府署)를 설치하였으며 828년에는 신라 장 보고(張保皐)라는 사람이 완도에 청해진(淸海鎭)이라는 해상 근거지를 설치하고 동방의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까지 되였다.

고려 시기에 들어 와서 해상 왕래는 더욱 빈번해 졌으며 송나라와의 무역 관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멀리 중근동의 아라비야 상선들까지 래왕(1025년)하게 되였다.

이 시기 선박들의 적재량이 4,000석(600톤)이나 되였다는 데 미루어 보아도 당시 우리 나라 조선술은 세계 목선 건조 력사에서 최고봉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914년에 건조된 수군의 큰 배들은 그 넓이가 30 메터나 되였다. 거기에는 무려 300 명 이상의 수군을 싣을 수 있었으며 갑판우에서는 말을 타고 달릴 정도였다. 배를 건조하는 자료들도 직재(直材)를 사용하지 않고 곡재(曲材)를 사용함으로써 목재의 력학적 성질을 아주 합리적으로 리용했다.

더우기 이러한 규모의 대소 함선들을 불과 4 개월 동안에 900척이나 건조 하였다 하니 이것 만으로써도 당시 우리 선조들이 도달한 조선술의 높은 기술 발전 수준과 그의 물'적, 인'적 토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서 당시 외국에서는 자기 나라 배들보다 튼튼한 고려의 배들을 사가군 하였다 한다.

리조 시기에 이르러 우리 선조들의 조선술은 더욱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1550년에 안현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륜선(輪船)이 처음으로 창안 건조되였다. 《이 륜선은 배의 좌우에 바퀴가 있어서 몇사람씩 교대하여 발로 밟아서 돌리니 물을 차고 앞으로 나감이 날아가는 듯 하였고 배의 회전도 빨라 자유 자재였으며 돛이 필요 없어 바람이 불지 않은 때에도 능히 항행할 수 있었다》.(정 다산 저《목민심서》에서)

특히 우리 나라 조선술 발전 력사에서 특출한 기여를 한 것은 리 순신 장군의(1545~1598) 천재적 창안에 의하여 건조된 거북선이다.(이미 1413년에 만들었던 거북선을 개조한 것으로 본다)

거북선이야 말로 당시까지 우리 선조들이 축적한 조선술의 훌륭한 전통과 기술적 제 성과들에 기초하여 건조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며(구라파의 철갑선은 1818년에 영국에서 비로소 제조하였다). 현대적 선박 건조 기술의 견지에서도 감탄할 만한 연구 대상으로 되고 있다.



거북선의 건조는 리 순신 장군이 임진 조국 전쟁을 한해 앞두고(1591년)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든 것이였으며 실지 왜적들을 격멸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거북선은 만드는 공정이 간단할 뿐만 아니라 그의 견고성에서도 당시 다른 나라 배들과는 비할바가 아니였다. 그러기에 거북선이 적선들과 충돌하면 단번에 수척씩 파괴하군하였다. 배의 크기만해도 왜적들의 배의 약 2배가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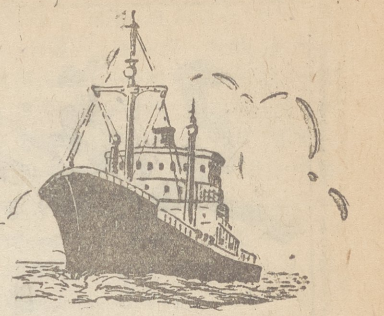
즉 거북선의 길이는 112척, (약 27 메터 이상) 배 허리의 넓이는 14척 5촌이나 되였다. 배안은 2층으로 되여 있는데 아래층의 선실만 하여도 24 개나 되였다.

또 배'머리에 설치된 룡의 대가리는 적들의 함선을 들어 받고 파괴하는 역할을 노는 동시에 적선에 불을 지르고 연막을 피워 아군의 행동을 가리우게 하였다.

거북선에 무장된 총통(총 쏘는 구멍)은 72 개나 됨으로 당시 장탄 속도를 고려할때 련속적 발사가 가능했고 거북선을 포위한 적선이 있더라도 적병들은 곧 비'발치듯 퍼붓는 련속 사격에 맞아 죽게 되여 있었다.

배 우에는 철판으로 덮고 철판 우에는 우리 측만 조심하여 다닐 수 있는 열십자 길을 남기고는 전면에 칼창, 송곳과 같은 것들을 수없이 든든히 꽂아 놓았고 그 우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위장하여 놓았다. 때문에 만일 적병들이 멋 모르고 배 우에 기여 오르다가는 반드시 거꾸러지군 하였다.

또한 거북선은 리 순신 장군 전집에 소개된 구조 치수에서 판단하면 80~90톤의 배수량을 가지고 있다. 속도를 보더라도 너비에 대한 길이의 대비가 7, 5대 1이라는 것과 노(櫓)가 좌우 각각 10 개씩 20 개가 있고 노 하나에 두 사람씩 즉 40명이 저은 것으로 보아 상당히 빨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기록에는 거북선이 바람이 불거나 밀물에 빠지거나 관계없이 다닐 수 있었다 한다.



이상과 같은 구조로 된 거북선은 당시 수백의 적선 속에라도 능히 뛰여 들어 적선들을 소탕할 수 있는 진실로 위력있는 군함이였으며 또 실제에 있어서 그러한 눈부신 역할을 하였다.

임진 조국 전쟁 이후 우리 나라 조선술은 계속 발전하여 18세기에 들어 와서는 조선술에 관한 학문으로서의 리론 체계가 확립되였다.

당시 선박에 관한 과학적 저서들로써 대표적인 것은 《속대전(續大典)》(1740년), 서 명응(徐命膺)의《고사신서(故事新書)》(1770 년대), 같은 시기에 출판된 신 경준(申景濬)의 《려암 전서(旅菴全書)》 등이다. 이 저서들은 우리 나라 조선술 발전에서 특기할만 한 과학적 로작들이다.

이것들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과학적 성과의 하나로서 자랑할 수 있다.

로동과 민요

박 은 용

우리 인민들은 먼 옛날부터 생활과 로동 과정에서 수 많은 민요를 창작하였다. 주옥과도 같이 아름답고 풍부한 우리 나라의 민요 유산들은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보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 민요 유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로동 가요이다.

로동 가요란 직접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리워진 노래들을 두고 말한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노래 없이는 일을 할 줄 몰랐다. 심지어 낫을 갈면서 부르는 노래까지 따로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근로에 대한 높은 사랑과 풍부한 음악적 재능에 대하여 말하여 주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노래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에 대한 단적인 실례로 된다.

실례를 들어 보기로 하자. 정월 초 이튿날부터 울리기 시작하는 농악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른 봄날 첫 거름 바리를 싣고 가면서 부르는 《갑내기》(황해도 지방에서는 일명 〈깔까리〉라고도 칭하였다.) 《호미타령》, 이앙 시기의 《모내기 소리》(상사 소리라고도 한다.) 탈곡 마당의 《도리깨 소리》, 겨울 야밤 담장 넘에로 구성지게 울려 퍼지는 《가마니 짜는 소리》 등 일년 열 두달 치고 노래 소리 끊어지는 날이 없었다.

그야말로 들판과 가정, 나물 캐는 두메와 고기 잡는 먼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로 가나 노래 소리로 가득차 있었다.

로동 가요에는 인민들의 로동에 대한 애착과 사랑, 적극성과 풍부한 락천성이 반영되여 있다.

오랜 봉건 통치와 일제 강점 하의 지난 날 우리 인민들은 힘에 겨운 로동과 지배 계급들의 가혹한 착취 밑에서 살아 왔다. 그러나 인민들은 결코 생활에 대하여 락망할 줄 몰랐으며 물러서지 않았다. 로동에 대한 사랑과 적극성 그리고 락천성은 다음의 민요들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상사 소리》

상사 소리도 듣기도
좋다
에에에로 상사뒤여

이바미 심으고 저바미
심으고
에헤에 상사뒤여
………

얼락 서산에 해 떨어진다
에에에 상사뒤여

월출 동령에 달 솟아 온다
에에에로 상사뒤여

이렇게 서산에 해 떨어지고 동령에 달 솟아올 때까지 일'손을 떼지 않고 로동에 전념한다.

또한 로동 가요에는 지주—부자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놈들의 기생충적 생활과 무위도식을 랭소하고 폭로하는 사상들이 반영되여 있다.

로동 가요의 성격은 해당한 작업 과정의 성질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집단적 로동 가요 (일을 공동적으로 진행할 때 부르는 노래)이고 또 하나는 개별적 로동 가요 (혼자서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우선 집단적 로동 가요의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보자.

집단적 로동 가요는 흔히 하나가 선 소리를 멕이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받아 넘기는 형식으로 되여 있는데 받는 소리가 작업 동작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여 그 동작이 률동적으로 음악화되였다면 《멕이는 소리》는 서정적인 표현으로 되고 있다.

례하면 받는 소리로서 《상사 소리》의 《에에에 상사뒤여》, 《호미 타령》의 《헤—헤—헤 호미로다》, 《달구 소리》의 《닐닐닐 상사도야》, 《옹헤야》의 《에헤헤 옹헤야》 등이 그것이다. 《메기는 소리》는 그 구절이 보다 길고 더욱 서정성이 농후하다.

《우 편으로 가면 큰 바다가 있고 불행한 일이 있을 터이니 좌 편으로 가옵소서》, (법성포 배'노래) 《네가 무슨 반달이냐 초생달이 반달이로다.》 (농부가) 등이 그러한 실례로 되고 있다.

그러면서 대체로 《멕이는 소리》 구절은 힘이 있기 보다 선률이 아름답고 노래를 멕이는 도창자 (노래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는 그 때 지여진 환경이나 평소부터 마음 속에 품어 오던 각가지 생각 등을 즉흥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도 창자의 《멕이는 소리》는 작업 집단, 나아 가서는 인민의 념원과 지향을, 통치배들에 대한 항거와 신랄한 풍자와 야유 등을 즉흥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집단적인 로동 가요라 하여 다 그렇게 멕이고 받는 식으로 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작업이 집단적으로 진행되기는 하나 작업 동작의 일치성을 보장할 수 없는 작업일 경우에는 그 노래의 성격도 달라졌다.

실례로 《룡강 긴아리》를 들 수 있다. 이 노래는 평안남도 룡강 지방에서 발생하여 대동강과 청천강 사이에서 널리 불리워진 집단적 로동 가요의 하나이다. 이 노래는 주로 김을 매면서 부르는 노래의 일종이다.

십 여명의 녀인들이 죽 늘어 서서 밭을 매고 있다.

《조개는 잡아서 젓 조리고
가는 님 잡아서 정 드리자
……
고대 광실만 바라지 말고
초가 삼간이라도 정만 깊어라.》

녀인들은 이렇게 노래 부르며 김을 매 나간다.

이 노래 속에는 인민의 아름다운 서정과 갸륵한 념원이 어리여 있는 것이다.

이 곡조가 끝나면 이어 률동적인 《타령》으로 교체된다.

《연분홍 저고리 남깃 소매
너 입기 좋구나 보기 좋구나
……
여울의 차돌은 부대껴 희고
이 내 몸 부대껴 머리털 셉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생활의 소원을 풀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절절한 토로가 가벼운 선률의 운동을 통하여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룡강 긴아리》와 같은 자유 곡조는 각지에 류포되여 있는 《메나리》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집단적 로동 가요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성격상의 구분이 있는데 작업 동작이 집단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의 노래와 그렇지 않는 경우의 노래가 다르다. 전자의 노래는 작업 동작의 률동과 밀접히 련결되여 박력 있고 힘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내심에 깊이 맺혀진 사연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서정적 표현이 전면에 나선다.

집단적 로동 가요와는 달리 개별적 로동 가요는 작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로동 행정에서 발생하였다.

가령 낫을 간다든가 베를 짠다든가 소를 몰고 밭을 간다든가 하는 작업 등이다. 개별적 로동 가요도 그 수가 매우 많다.

개별적 로동 가요는 작업의 률동과 일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집단적 로동 가요와 같으나 집단적 로동 가요에 비하여 서정적인 측면이 한층 농후한 것이 특징이다.

요즘 가야금 병창으로 널리 보급되는 《물레타령》은 전라도 지방에서 발생한 개별적 로동 가요의 일종이다.

…늦은 가을 초생달도 기울었다. 처녀가 홀로 앉아 물레를 돌리고 있다. 밖에서는 총각이 마음을 죄이면서 서성거린다.

《물레야 물레야 빙빙 돌아라
남의 집 귀동자 밤 이슬 맞는다》

넌짓이 뜻을 품고 있기는 하나 밖으로 나가보지 못하고 그의 찬 이슬 맞는 것을 안타까이 느끼고 있는 주인공의 다정한 심정이 높은 도덕적 풍모로써 울리고 있다.

《닭이야 울면은 이 밤이 새건만
물레는 울어도 샐 줄을 모르네》

이 걸출한 음악적 형상은 조선 인민들이 가진 구슬 같은 음악의 재보들이다.

이상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로동 가요들에서는 행복한 생활을 념원하는 인민의 념원과 그들의 지향이 강력히 반영되고 있다.

로동 가요—이는 우리 민족 문화의 귀중한 재부로 되며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훌륭히 계승 발전되고 있다.





조 종 환

1 초 동안의 에네르기는 5억 톤의 물을 끓인다

태양은 벌써 수십 억 년 존재하고 있으나 그 에네르기의 세기는 거의나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태양은 어찌하여 이런 막대한 에네르기를 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물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태양은 하나의 거대한 <가마>이다. 이<가마>속에서는 계속 열핵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 열핵 반응이란 네 개의 수소 원자핵이 서로 합쳐서 헤리움이라는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1,000만 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진행된다. 태양 내부의 온도가 바로 1,000만 도를 넘는다.

우리는 10 그람의 수소가 헤리움으로 될 때 내는 에네르기로써 약 7,000 톤의 물을(령도에서 100 도까지) 끓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태양에는 이런 수소가 상상하기 조차 힘들 정도로 많다. 태양에서 열핵 반응은 서서이 진행된다. 지금과 같이 열핵 반응이 진행 된다면 태양은 아직도 100억 년 이상 존재할 것이다.

태양이 이처럼 막대한 에네르기를 내고 있으나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버리고 지구에 도달하는 에네르기 량은 그의 100억 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지구에 매 초마다 떨어지는 태양 에네르기 량은 실로 막대하다. 1 초 동안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네르기로써 약 5억 톤의 물을(령도에서 100 도까지) 끓일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동력 원천으로 리용하고 있는 자연 연료 즉 석탄, 원유는 매우 빠른 속도로 채굴되고 있다.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에 매장되여 있는 석탄, 원유 등의 자연 연료는 불과 100 년 전후하여 다 채굴하여 고갈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동력 문제는 원자력과 태양 에네르기를 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다.

현재 원자력을 동력으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쉽게 막대한 에네르기를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또 있으니 그것은 실로 무궁 무진한 태양 에네르기인 것이다.

그러면 태양 에네르기를 리용한 분야와 리용 전망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태양 열 가마>

여러분들은 맑게 개인 날에 적은 확대경으로 태양 광선을 한 점에 집중시켜 불을 일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태양 에네르기를 한 점에 집중시켜 리용하는 방법은 확대경 뿐만 아니라 포물형 반사경 또는 원주형 반사경 등으로써도 가능하다. 반사경의 재료로써는 유리 혹은 알미눔 등이 흔히 사용된다. 이런 반사경들의 초점 위치에 가마가 설치된다. 이와 같은 장치를 <태양 열 가마>라고 부른다. <태양 열 가마>는 저온(낮은 온도)및 고온(높은 온도)가마로 구분된다. 저온 <태양 열 가마>로서는 가정용 온수 혹은 목욕탕에 쓸 온수 등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다층 아빠트의 옥상에 10 m²의 원주형 반사경을 가지는 저온 <태양 열 가마>가 놓였다 하자, 그러면 여름날 개인 때에는 이런 <태양 열 가마>에서 매 시간당 50~70 릿다의 물을 100도 이상으로 끓일 수 있다.

고온 <태양 열 가마>에는직경이 1~수 m²의 포물형 반사경이 리용된다. 이러한 반사경의

초점 부근의 온도는 3~4천 도에까지 달한다. 이것은 가정용 뿐만 아니라 야금 및 특수 합금 제조에 리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태양 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아직 태양 발전소에서의 전력 원가는 화력, 수력보다 더 비싸다).

<태양 광전지>

태양 에네르기를 리용하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유망한 길은 반도체 광전지 및 반도체 열 발전기를 리용하는 것이다. 반도체 광전지나 열 발전기들은 태양 빛이 작용하면 곧 전기 에네르기를 발생한다.

태양 광전지는 주로 반도체 규소로써 제작한다. 규소로 만들어진 태양 광전지는 이미 인공 지구 위성들과 우주 로케트들에서 라지오 기구 장치들의 전원으로써 성과적으로 쓰이고 있다.

<태양 광전지> (판대기의 너비 1m, 길이 4.5 m이고 두께가 비스케트만한 것)를 지붕에 올려 놓으면 가정에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에네르기를 즉 전등'불, 난방, 전기 난로, 흡진기(먼지를 흡수하는 기구), 랭장고, 라지오, 전기 다리미 및 취사용 전기 곤로 등에 소요되는 전기 에네르기를 충분히 공급하여 줄 것이다. 밤에는 어떻게 하는가? 낮에 전기를 축전지에 모았다가 밤에 공급 받으면 된다.

미래의 태양 에네르기의 동력화는 실로 우리들을 흥분시키는 것이다. 오래지 않은 장래에 태양 광전지들은 우선 작은 형태의 동력으로서 농업 협동 조합과 농기계 작업소, 및 건설장들에 나타날 것이다.

해'빛이 땅과 논밭을 말리면서 내려 쪼이면 쪼일 수록 태양 광전지 판대기와 련결된 양수용 펌프는 더 힘있게 물을 빨아 올릴 것이다.

건설장에서는 전선을 느리지 않게 될 것이다. 벌써 태양 광전지에 의하여 달리는 자동차도 나타나고 있다. 농업 협동 조합과 공장 구내와 정거장들에서 《태양 수레》가 일하게 될 것이다. 이 수레는 그리 크지 않은 짐들을 운반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리용된다. 거기에다가 정지할 때면 에네르기를 축전지에 더 모을 수 있다. (태양 동력기는 정지할 때도 전기를 모으게 된다.) 이 놀라운 미래의 《태양 수레》는 온 하루 빛을 《먹으면서》 일하게 된다.

황무지와 초원 그리고 농경지로서 사용할 수 없는 땅들의 일부분이라도 태양 광전지 판대기로 덮는다고 하자. 그러면 광전지 판대기를 씌운 황무지는 2~3 km²에서 동양 굴지의 수풍 발전소가 내는 것과 거의 같은 전기 에네르기를 낼 수 있다.

아마도 몇 해 지나서 반도체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여 공업에 도입되고 태양 광전지들을 간단하고 값싸게 만들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은 산 비탈 건물들과 공장 및 학교들의 지붕과 벽체를 광전지 판대기와 반도체 열 발전기의 요소들로 덮게 될 것이다. 전력으로 바뀌진 태양 에네르기에 의하여 사람들은 물을 끓이고 자동차, 전기 기관차 등을 달리게 하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게 할 것이다.

《청년 생활》 소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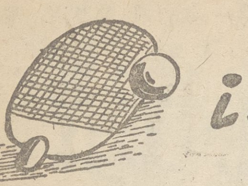
반도체—우리는 금속과 같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를 도체라고 부르며 고무나 수정과 같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를 절연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주위에는 규소, 게르마눔등과 같이 도체도 아니고 절연체도 아닌 중간 물질이 많다. 우리는 이런 물체를 반도체라고 한다. 최근 반도체는 전기 공학에 새로 등장하여 라지오 공학, 태양 에네르기의 리용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암뻬아—전류의 세기를 표시하는 단위이다. 물을 키로그람이나 릿터로 재듯이 전기도 클론이라는 단위로 재는데 1초 동안에 1 클론의 전기가 흐를 때 이 전류의 세기를 1암뻬아라고 한다.

볼트—전기는 전압이 있어야 흐른다. 물을 비유해 말하면 수면의 높이의 차이가 있을 때 물이 흐르 듯이 전기도 전압이 있어야 흐른다. 이 전압의 단위를 볼트로서 표시한다.

와트—전류가 일정한 시간에 얼마만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일 능률을 표시하는 단위이다. 즉 1 초 동안에 1줄씩 (일의 량을 재는 단위가 줄인데 줄의 일의 량을 열로 환산하면 대략 2칼로리이다.) 일을 하는 능률이 1 와트이다.

옴—저항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이다. 1 옴라는 것은 1 볼트의 전압을 주었을 때 1 암뻬아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도체의 저항이다.



땀을 더 많이 흘리여

1급 선수단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제 1 위를 쟁취한 당년 17 세의 박 신일 선수에 대한 이야기

김 진 각

결승전

관중들의 흥분과 주시 속에 1 급 선수단 탁구 선수권 대회 제 2 차 련맹전의 제 1 회 전은 시작되였다.

탁구대를 중심으로 두 선수가 마주 서 있다. 그 한쪽에는 아직도 얼굴에 애티 있는 선수가 서 있는데 그는 《기관차》 체육단의 박 신일 선수이다. 그는 지금 17 세이다. 그는 아직 출생증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벌써 1 급 선수단 련맹전에서 4~5 차나 2~3 위를 쟁취함으로써 탁구계를 경탄시킨 재능 있는 신진 선수이다.

그의 맞은 켠에는 강철 체육단의 정 길화 선수가 너그럽게 웃으며 서 있다. 그는 백전백승의 로장이다. 오른쪽 강타에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는 1960년부터 최근까지 1 급 선수단 련맹전에서 어찌다가 단 한번 패권을 빼앗겼을 뿐 10 여 차에 걸쳐 제 1 위를 쟁취한 우리 나라 탁구계의 제일인 자이다.

지금 두 적수가 경기를 앞두고 마주 서 있다.

(자— 누가 이길 것인가?)

장내는 고도의 긴장과 흥분에 휩싸여 있다. 이 두 선수의 경기는 기술 수준으로 보나 승자 련맹전 수준으로 보나 8월 련맹전의 결승전이나 다름이 없다. 체육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두 선수의 경기는 드디여 시작되였다.

정 길화 선수는 처음부터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오른쪽 강타를 들이댄다.

그러나 이 때마다 박 신일 선수는 조금도 당황함이 없이 탁구대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중 장거리 타격과 속공을 배합하여 그의 공격을 좌절시킬 뿐만 아니라 5:4, 6:4로 이렇게 한두점씩 앞서 나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 길화 선수는 박 신일 선수의 다양한 기술 앞에 점점 수세에 빠져 날쌔게 넘어 오는 공을 받아 넘기는데 급급하였다.

결국 제 1 회 전에서 박 신일 선수가 21:16으로 먼저 승리하였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 제 2 회 전이 시작되였다.

박 신일 선수는 이번 2 회 전에서 승리하면 영예의 우승권을 쟁취하게 된다.

정 길화 선수는 1 회전 보다 더욱 침착하게 강타를 꾸준히 들이댄다.

경기는 막상 막하의 격전을 전개하여 성적은 어느덧 18:18, 19:19 이렇게 동점이 계속되였다.

누가 먼저 20점을 쟁취하느냐 하는 때 박 신일 선수가 처 넣기를 깎아서 보낸 공이 성공하여 20:19로 박 신일 선수가 한점 앞섰다.

그러나 상대방의 기세 역시 만만치 않았다.

정 길화 선수는 처넣기한 공을 바른켠 모서리로 길게 처 보낸다. 호상 장거리 타격이 계속되던 순간 박 신일 선수는 왼켠 모소리로 강하게 오는 공을 받아 낸다는 것이 그만 중심을 잃은 탓에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장내에 떠나 갈듯한 함성이 또 터졌다.

20:20 동점이 되였다. 수세에 빠진 박 신일 선수는 그만 득점 못 하고 22:20으로 2 회 전은 정 길화 선수의 승리로 끝났다.

결판을 내는 3 회 전에서는 처음부터 박 신일 선수가 주도권을 쥐였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기술은 황홀할 정도로 기묘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2:1의 성적으로 박 신일 선수가 이날 승리의 개가를 올리였다.

이리하여 박 신일 선수는 이번 승자 련맹전에서 16승 1패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제 1 위를 차지함으로써 우리 나라 탁구계에 일대 파문을 던졌다.

완강한 훈련

박 신일 선수의 이 빛나는 성과가 우연히 얻어진 것은 아니다.

그는 각이한 특징을 가진 대상들과 싸울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 장거리 타격, 외로 치기와 바로 치기의 능숙한 련결 타격 중 어느 한 가지 약한 고리가 없이 모두 자의대로 적용하는 다양한 기술과 세련된 전술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어찌하여 이렇게 훌륭한 재능을 가진 선수가 되였는가? 그것은 전혀 우연한 것이 아니다.

2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학교의 나어린 탁구 선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 때부터 벌써 그의 포부는 대단히 컸다. 그러나 욕심 하나만 가지고서는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자기와 같은 또래들과 경기를 해서 지고 나면 여간 분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 꼭 이겨야 한다.》

그는 마음 속으로 굳게 다짐 하였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혼자 남아서 바람'벽에 대고 공 치는 련습을 하였다. 그래도 성차지 않아 때로는 집에 돌아와서 책상을 놓고 공을 치면서 공이 손에 익숙되도록 하였다.

체육에 대한 비상한 관심과 완강한 노력은 그로 하여금 학교에서 으뜸가는 선수가 되게하였다.

때마침 학교에서는 바야흐로 싹 트기 시작한 그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켜 주기 위해 체육 구락부에 추천하였다.

그때부터 박 신일 선수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구락부에 가서 한 가지씩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의 재능은 차츰 중앙에서까지 알게 되였다.

《기관차》 체육단에 올라 온 후부터 그는 더욱 정열을 기우리기 시작하였다. 어떤 동무들은 박 신일 선수의 훈련 모습을 보고 못내 의아쩍게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륙상 선수도 아닌 탁구 선수가 밤낮 없이 달음박질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신일 선수는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 그것은 남보다 많이 달려 교치성과 민활성을 요하는 탁구에 알맞게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경기장에 나와 달리는 걸 제외 하고도 아침 저녁 자기의 거주 구역 주변을 달린 것만 보더라도 하루에 평균 50 리씩 된다.

겨울에는 추위가 살 속까지 스며 들어 달리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모란봉을 오를 때면 다리가 천근만근 되여 오고 숨이 하늘에 닿는 것만 같다.

그러나 그는 나래치는 천리마 동상을 보며 거기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달리고 또 달리였다.

이리하여 1 급 선수단 탁구 선수들 중에서 누구보다 제일 잘 달리게 되였고 육체적 준비에서도 남달리 뛰여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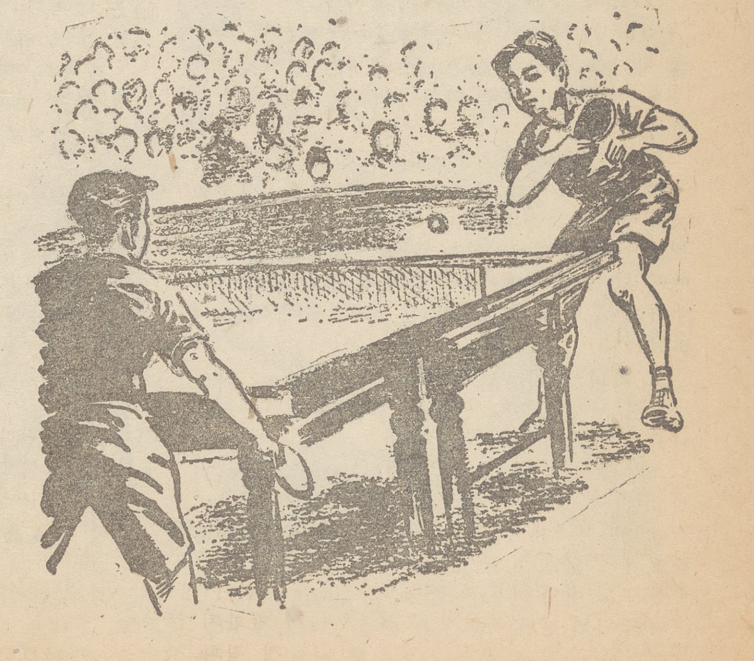
일요일에 선수들은 휴식한다. 한 주일 동안의 모진 훈련에서 온 피로를 풀기 위해 선수들은 집으로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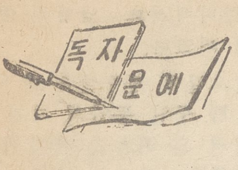
박 신일 선수도 역시 집으로 간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는다. 닥쳐 오는 경기를 잘 맞기 위해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 급 선수단에 올라 온지 2 년 째 되지만 아직 훈련을 하지 않은 날은 한번도 없다.

그의 기술에서 특징의 하나가 걸어치기인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그는 이 훈련만 1 년 동안에 18만 번 하였다. 이것은 실로 남의 두 곱이나 되는 훈련 량이다.

이처럼 이악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오늘의 자랑스러운 성과가 차례지게 된 것이다.





렬차에서 있은 일



얼마 전 나는 청진에 갔다가 한 귀국 동포 부인과 알게 되였다. 설흔 고개를 넘은 중년 부인이였다. 그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정말 우리 나라 청년들은 얼마나 훌륭한 청년들인가요. 내가 귀국 후 보고 느낀 수 많은 감동적인 사실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내가 당한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때 나는 개성에 있는 한 친척 집에 갔다가 청진에 있는 집으로 돌아 오고 있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말입니다.

차에 오르니 웬 철도복을 입은 나어린 처녀가 자리를 권하며 앉으라는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둘이 마주 앉아 려행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 처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우리 애들을 안아도 주고 과자도 사 주는 것이였어요, 어쩌도 그리 얌전한지. 그런데 우리 큰애가 사리원에서부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열이 오르면서 앓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얼려도 다급한 소리로 울기만 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당황해났습니다.

그 처녀가 렬차원에게 달려 가 무슨 약도 가져다 먹였으나 그애의 복통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차실 내에는 방송원 처녀의 성급한 목 소리가 울립디다.

<만약 차내에 계신 손님들 중에서 의사나 간호원이 있으면 앞으로부터 세번째 칸에 와 주십시요. 어린 아이가 앓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목소리는 되풀이 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애게로 간호원들, 어느 의학 학교 학생들 여럿이 달려 왔습니다. 지어는 할머니, 청년들, 온 차실 내 손님들이 달려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바삐 달려 와서는

<애가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였어요. 나는 정말 코허리가 시큰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라면 어디 이런 일을 상상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애를 둘러 싼 간호원들 중에도 역시 의료 기구나 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려행 중이였으니까요. 그들은 난처해 하면서 나에게 도중에서 내려 아이를 고쳐 가지고 돌아 가라고 권고합니다.

그래도 저는 차에서 내려 두 아이를 한꺼번에 업고 병원까지 갈 일이 큰 일이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 눈치를 챈 그 처녀가 말하는 거지요.

<아주머니두 제가 도와 드리지요. 저와 함께 가자요.>

<원 별소릴…오죽 바쁠라구>

내가 이렇게 사양한즉 그처녀는

<아주머니 원 사람이 중하지 려행이 중하겠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평산역에서 내린 우리는 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큰 애를 업고 한마디 힘들다는 말도 없이 그 처녀는 내 앞에서 마구 달려 갔습니다.

의사들은 그 애의 병이 몹시 위독하다고 하였습니다. 구급 처치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수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애를 낳아 기른 이 어미 조차 미처 궁리 못하고 있는데 그 처녀가 불쑥 팔을 걷고 나서며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선생님, 제 피를 넣어 주세요, 제 피는 O형이예요.>

의사가 난처한듯 말했습니다.

<동무는 몸이 몹시 약해 보이는데…>

<선생님, 이 애는 제 조카예요.>

처녀는 한 걸음도 물러 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간호원들도 너도 나도 하면서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데라구야 어디 있겠어요. 나는 이 때처럼 조국의 고마움에 대하여 가슴 깊이 느낀 때는 없었습니다.

나는 솟구치는 눈물을 어찌는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식이 귀해서라기보다 사람들의 고운 마음씨에 감동되여 울었습니다.

나는 일본에 있을 때 돈 없어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을 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에서는…≫

녀인은 말끝을 흐리였다. 새삼스러이 조국의 고마움이 다시 안겨 오는 모양이리라, 그의 눈에는 밝은 것이 반짝이였다. 한참 후 그녀자는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처녀는 밤에도 나와 함께 그애의 머리 맡에 앉아서 한잠도 잠 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 때문에 그 처녀는 하루의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다음 날 우리 애의 병은 씻은듯이 낫고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그제사 나는 제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어느 직장에 다니며 이름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처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어요.

<아주머니, 그런걸 알아선 뭘 해요. 우리 나라 청년들은 모두 그렇답니다.>

이 얼마나 소박한 동무입니까? 그래도 나는 끝내 그의 이름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 처녀가 옆에 차실로 잠간 볼 일이 있어 간 새에 그가 읽던 책을 들고 보니 거기에 주소 성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양 대동강역 윤 길자라구요.≫

나는 어지간히 놀랐다. 그는 바로 우리 직장 동무인 것이다. 언제나 부지런하고 맡은 일에 충실한 길자 동무! 그러면서도 그는 직장에 돌아 와서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았구나!

≪아주머니 그게 바루 내 동무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즉 그 부인은 일변 놀라고 일변 기뻐서 손'벽을 쳤다.

≪원 이런 별일 이라구야. 만나면 꼭 안부 전해 주세요. 우리 애들이 잘 논다구요.≫

…얼마 후 직장에 돌아 온 나는 그날 저녁 길자의 숙소로 갔다. 그는 창'가에 앉아서 무슨 책을 골돌하게 읽고 있었다. 살그머니 등 뒤에 가서 엿보니 그것은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회상기였다.

평양 대동강 역

김 영희





나의 심장 뜨겁게 고동친다

머리 우에 휘영청 밝은 달을 이고도
재벽'길 안개를 마시면서도
나는 다니고 또 다닌다.
천리마 기수들의 숨'결을 찾아서…
나의 구역 사람들의 생활을 찾아서…

청진기와 체온기
그것은 나의 무기
그보다 위력한 나의 심장,나의 가슴 속엔
인민에 대한 충성과
생명에 대한 사랑이 끓고 있어라!

재벽'길을 마다 아니하는 우리,
밤'길을 또한 마다 아니하는 우리
당이 맡겨준 영예로운 일
젊은 보건 전사의 보람으로
나는 언제나 다닌다.
이 집에서 저집으로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안고,행복을 안고…

모두다 나의 혈육이고 한 집안,
나의 마음 집집마다 쏠리고
이 땅에 새로 태여나는 첫아기 받아
안을 땐
가슴에 끓어 오르는 사랑의 정이여…

어느 늦은 밤 사택 마을 뒤집 창문에
오래오래 불'빛이 자지 않아
내 그곳으로 걸음 옮겼더니
창넘어 젊은이들 책상을 사이두고
그 무슨 창안에 열중하고 있어라
아,질병을 모르고 무병 장수하는 세월
이여!
먼 하늘에선 새'별이 미소하며 나를 불
러라.

나의 심장 누굴 위해 고동치랴.
나의 눈, 나의 손 누굴 위해 움직이랴.
저 아빠트의 젊은 강철공도
저 풍년'벌의 한 조합원 아바이도
뒤'마을 우물집 신혼 부부도
그 앞'집 누구네 막내 딸도!
나는 순간을 잊지 않노라,
그들의 숨'결, 그들의 웃음
그들의 로동과 미래, 그 모든 것을!

아, 나는 이러한 자랑 속에 다니고 또
다닌다.
여섯개 고지 전사의 마음으로
오늘도, 래일도
인민들의 장수를 위하여
나의 심장 뜨겁게 고동친다.

평양시 적십자 병원

송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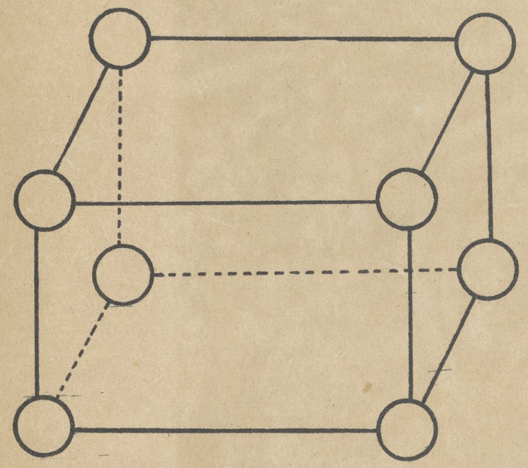


청년 오락실

(현)(상)(문)(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립방체는 8개의 정점과 6개의 면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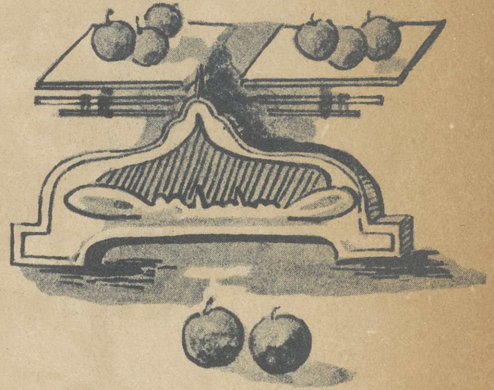
정점마다 1, 2, 3, 4, 5, 6, 7, 8의 수'자를 임의로 배당하여 매 면을 이루고 있는 4개 정점의 수'자의 합이 모두 18이 되도록 하라.



☆ 전호의 해답

① 1, 2, 3 을 왼편에 놓고 4, 5, 6을 오른편에 놓는다.

균등히 잡히면 다 내려놓고 남어지 2개 (7, 8)를 량쪽에 올려 놓는다. 이 경우에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별 문제이지만 균형이 잡히는 경우에는 다시 1,2 를 량쪽에 놓는다. 균형이 잡히면 3이 작은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4, 5, 6중에서 작은것을 찾아낼 수 있다.



②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1	2	3	4	5	6	7	8	9	10	55
10	1	2	3	4	5	6	7	8	9	55
9	10	1	2	3	4	5	6	7	8	55
8	9	10	1	2	3	4	5	6	7	55
7	8	9	10	1	2	3	4	5	6	55
6	7	8	9	10	1	2	3	4	5	55
5	6	7	8	9	10	1	2	3	4	55
4	5	6	7	8	9	10	1	2	3	55
3	4	5	6	7	8	9	10	1	2	55
2	3	4	5	6	7	8	9	10	1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합계

《청년 생활》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 전화 (38-58. 83-85)
1962년 9월 10일 인쇄 1962년 9월 15일 발행 ㄱ-230580



《풍 작》 판화

청진시 윤 정환 작